

## 시편 4

120-150

## 시편 4 120~150

2019년 5월 12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

# 시편 4

120-150

## 작성

시편 120:1~7   정한조	시편 136:1~26   정한조
시편 121:1~8   정한조	시편 137:1~9   정한조
시편 122:1~9   이성실	시편 138:1~8   정한조
시편 123:1~4   박성호	시편 139:1~12   정한조
시편 124:1~8   정한조	시편 139:13~24   강요섭
시편 125:1~5   정한조	시편 140:1~13   정인철
시편 126:1~6   정한조	시편 141:1~10   정한조
시편 127:1~5   정한조	시편 142:1~7   정한조
시편 128:1~6   임용완	시편 143:1~12   정한조
시편 129:1~8   최영민	시편 144:1~15   정한조
시편 130:1~8   정한조	시편 145:1~21   송호욱
시편 131:1~3   정한조	시편 146:1~10   백정수
시편 132:1~18   정한조	시편 147:1~20   정한조
시편 133:1~3   정한조	시편 148:1~14   정한조
시편 134:1~3   이광희	시편 149:1~9   정한조
시편 135:1~21   정재규	시편 150:1~6   정한조



묵상한 날 : . . . . .

1

# 오래 거주하였도다

시편 120:1~7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3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4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숲불이리로다 5 메섹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  
게 화로다 6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7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 응답에 대한 기쁨과 거짓에 대한 분노(1~4절)

오늘 본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표제어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  
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 여러 지방이나 심지어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처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20~134편까지를

‘성전 순례시(Temple Pilgrim Psalm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5편의 시들은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순례길을 걸으며 노래하고 읊조렸기에 길지 않아야 암송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일이 시작되는 자정이 지난 시각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교회의 청년들이나 성가대에서 성도들 집을 찾아다니며, 성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 때에 일일이 찬송가책을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몇 곡을 외어서 불렀습니다. 또한 찬송가 4절까지를 새벽송을 도는 사람이 모두 외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1절만 반복해서 부르곤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주의 집’, ‘예루살렘’, ‘시온’과 같은 단어가 다른 시편들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이 시편들 중에서 다윗의 시가 4편이 있고, 솔로몬의 시가 1편,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기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시편들입니다.

또한 표제어가 이와 같이 붙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首都), 머리도시’는 ‘서울’입니다. 나머지 모든 지방에서 서울로 향할 때는 “서울에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도시의 해발이 아무리 높아도, 거기에서 서울을 향할 때는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서울이 머리도시라면, 지방에 있는 도시와 마을들은 팔과 다리가 되는

도시와 마을이 되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됩니다.

(1)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인이 순례의 길을 건다가 위험한 협곡을 통과하게 되었거나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할 수 없는 일,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해 힘든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여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환난이라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면, 애를 태우며 부르짖지도 않아도 되고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저도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상황이 인생에 한 번도 없어도, 하나님께 와서 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시편 전체에서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의 주옥같은 시편들은 모두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

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 18:1~2)”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1인칭의 고백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  
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  
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34:8,10)”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고백은 “다윗이 아비  
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표제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  
사형통할 때에 지은 시’나 ‘배 부르고 등 따뜻할 때에 지은 시’,  
‘자식들이 말 잘 듣고 믿음이 좋을 때에 지은 감사시’와 같은  
것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극심한 환난이나 절박한  
상황에서 지은 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야 할 환난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거나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  
시기 때문입니다.

## (2)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에서 ‘거짓된’이라는 단어는 ‘배신적 행위를  
하는 거짓말’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다가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속담으로 표현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되면, 발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발에 난 상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물게 되지만, 마음에 지난 상처는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평생 치유되지 않기도 합니다.

‘속이는 혀’에서 ‘속이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뜻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목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발등이 찍히고 뒤통수를 맞는 상황과 위증 등으로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큰 고통을 느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짓과 속임에 대해 이렇게 분노합니다.

(3~4)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렘 나무 솟불이리로다

시인은 악에 대한 분노를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라며 2중 의문문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에 중동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하고서 맹세할 때에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서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 신이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꼬?”라고

말하면, 또 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저주와 심판들이 내게 더하여 질 것이다”라고 화답함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시인은 맹세가 아니라 속이는 혀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템나무 숯불’과 같다고 합니다.

‘화살’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해치는 무기이고, ‘로템나무’는 중동에서 많이 재배되는 나무인데, 나무가 단단하고 잔가지가 많아 오랫동안 불에 탔기 때문에, 연료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템나무 숯불’은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무서운 표현을 써가며 속이는 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거짓에서 떠나는 결단(5~7절)

5~7절에서는 시인이 거짓과 속임에서 떠나려는 결단을 피력합니다.

#### (5)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섹’은 노아의 셋째 아들인 야벳의 6번째 아들이며,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이방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의 둘째 아들이며, 그 후

손들이 사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이방도시였습니다.

시인은 팔레스타인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이방도시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특히 ‘내게 화로다’는 표현은 주로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외치는 통곡의 말이었습니다. 즉 시인은 죽음을 당한 지인처럼 자신의 삶이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6)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이 표현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같이 놀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만 어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 미미한 신앙생활이어도 삶에 규모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망가졌구나. 이제라도 다시 교회에 다니며,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을 바꿈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7) 나는 화명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표준새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시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어울려 다녔지만, 지나고 보니 자신과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타락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불신자는 넘어도 그리스도인은 넘지 못합니다. 이 구절은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는 시인의 결단, 시인의 회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전에 자신이 환난을 겪었던 것과 그 때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신분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이전에는 등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기름을 담은 등을 가진 백성이 되겠노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을 때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영원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지, 그리스도인다운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만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걸맞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순례자의 길로 만들며,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삶, 어제보다 나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보름동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길과 믿음의 길이 영원을 향한 순례자의 길임을 확인하려 합니다. 시인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런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환난을 만날지라도 잘 통과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그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믿음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오래 거주하였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으며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여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활히 여겨주심,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그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으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순례자의 삶,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 우리의 신분과 수준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로 가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편 120~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마음을 다해서 불렀던 노래(찬양)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당신을 지켜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던 기도제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3. 시인은 문득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졸지도 주무시지도

시편 121:1~8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 도움의 원천은?(1~2절)

오늘 본문, 121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중에서 2번째 시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1~2절은 1인칭(나)을 주어로 표현하고, 3~8절은 2인칭(너)을 주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순례길에 오른 부모와 자녀가 대화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말



하기도 하고, 순례자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화답하는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순례자들이 1~2절에서 ‘나’를 주어로 하여 자문자답 형식으로 독백을 하였다면, 제사장들이 3~8절에서 ‘너’를 주어로 하여,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과 같은 형식으로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입니다.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가

오래 전에는 우스갯소리로 1절을 근거로 하여 시편 121편을 ‘식목일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산에서 오니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씬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교를 숭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산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 여기저기에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신전에는 남녀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재앙을 막아준다는 약을 팔기도 하고, 부적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며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 위에 있는 여러 신전들을 봅니다. 어느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바알신이 나를 지켜줄까요? 아세라 여신이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태양신의 사제들이 도움이 될까요? 달신의 여사제들이 도움이 될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을 히브리어성경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리합니다. “내가 눈을 듭니다. 산을 향하여.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이.” 2절을 히브리어성경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리합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1절의 마지막 말은 ‘나의 도움이’이고, 2절의 시작하는 말도 ‘나의 도움이’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도움’을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구조’, ‘원조(援助)’ 등의 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전쟁 중에 위기에 처한 이군에게 군사와 물자 등을 지원하여 보낼 때에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노래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실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에, ‘천지’속에 자기 자신도 들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주시며,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아담의 보조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은 하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하와도 아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때에 자기 배우자가 좀 더 온전해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좀 더 잘 치를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 지키시는 하나님(3~8절)

3~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삼중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3~4)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첫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순례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다’는 문자 그대로 발을 잘못 디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또 운동신경이 활발한 때는 넘어지더라도 굼히고, 다리를 빼는 정도의 크지 않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다릅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이 넘어져서 고관절(엉덩이 뼈)을 다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등산을 갔다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순례자들은 지금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실족하여 경사가 큰 곳으로 구르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실족하다’는 우리의 인생 순례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23~24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 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선행,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밤에 도적이나 맹수들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기도 했고,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하기 했습니다. 불침번이든 파수꾼이든 인간인지라 경계를 서다가도 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돈이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파수꾼으로 세우기도하고, 권력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겨 권력을 불침번으로 세워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능력을 과신하여 스스로를 파수꾼과 불침번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였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찬송하며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둘째 의미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중동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들은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사의식으로 신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깨우는 제사들은 아주 요란했고, 공을 아주 많이 들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큰 위기라고 느낄수

록,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최고의 정성을 바친다는 의미로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등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주위를 돌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 보시오. 바알 신이 다른 불일을 보고 있는지, 화장실에 있는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 자고 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우리 알고 있는 그대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심은 얼마나 큰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5~6)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둘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순례자들에게 그들이 되어 주시며,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여름은 모든 기록을 세울 정도로 몹시 무더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낮 평균 기온이 32~37도나 됩니다. 이스라엘의 한 여름은 해마다 우리의 지난여름과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른쪽(능력)에서 그들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몹시 큰 곳이라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의 지켜주심은 표면적으로는 낮의 무더위,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낮의 해’는 육체적인 위험을, ‘밤의 달’은 정신적인 위험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중동의 사람들은 밤의 달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여 밤에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단어에서 정신이 아픈 것들을 달과 관련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달의’이라는 의미의 단어, ‘lunatic(루나틱)’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moonstruck(문스트럭)’은 ‘사랑에 빠져 정신이 이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심’과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함’,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 주심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셋째 선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7~8)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환난에서도 지켜 주시며, 영원히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면하게 하시며’라는 말이 없습니다. 환난에서 면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에서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환난에서 면제된 인생’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환난을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와 자녀 관계(아들일 때에), 형제관계, 주군과 신하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아버지일 때에) 등 환난을 겪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양과 같은 자신을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입을 지켜 주신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침에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순례의 길을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길의 위험도 있었고, 이상승배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지켜 주심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은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됨 자체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욱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매일 매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 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오지 않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오늘도, 한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우리가 잘 걸었기 때문이거나, 조심해서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되새겨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매일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의 들어오고 나감을 지켜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인정할 밖에 없었던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2.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3.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4.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5.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순례자의 길

시편 122:1~9

###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2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3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22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중에서 3번째 시편입니다. 순례자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부터 먹먹해집니다. 순례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겠다고 집을 나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몇일

전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순례자의 길>에서 5명의 순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가는 순례의 길은 중국 스촨성에서 티베트 불교의 성지 라싸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체투지란 두 무릎과 손바닥 그리고 이마를 지면과 밀착시키며 하는 절입니다. 순례자는 나무장갑과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미끄러지듯이 절을 합니다. 길이 아스팔트 도로이건 험준한 산길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성지 라싸까지 가는 동안 필요한 나무 장갑의 수만 50~60 쌍입니다. 거리는 2,000km가 넘고, 시간으로는 6개월이 넘게 걸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순례길입니다. 순례자들의 몸은 당연히 성할 날이 없습니다. 무릎과 가슴에 수많은 물집은 기본이고, 이마에는 피멍이 생겼다 나았다는 반복하며 점 같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순례자들에게는 이 길이 평생을 꿈꿔왔던 길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례를 떠나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선함을 가슴에 간직한 채,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순례자의 마음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1)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시인에게 여호와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인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은 영광스런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시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자는 말을 듣고 펄펄 뛰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따라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길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에 빠져있을 때, 교회 가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예배가 있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은 더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노방전도가 있는 날은 더 행복했습니다.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흠어지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동네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깨워 교회로 인도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인 그런 마음으로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4)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서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와 그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내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은 잠시 뿐입니다. 이내 필요한 것이 또 생기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또 생기면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또 다른 필요가 채워질때까지 감사의 마음은 없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나로부터 비롯되면 감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면 그 감사의 마음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2:16~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주신

한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았으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했을텐데 아직 갖지 못한 한가지에 집중하느라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갖지 못한 한가지에 집중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예루살렘을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길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이 계시는 성전, 곧 건물에 평안을 구하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빌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형통  
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됨’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입  
니다. 이는 119편 16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로다”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더이  
상 장애물이 아니라 징검다리요, 디딤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  
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더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께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징검다리요  
디딤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8~9)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인은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  
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습니다.

〈차마고도, 순례자의 길〉에서 순례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순례를 떠나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선함을 가슴에 간직한 채,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번이라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사람은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빈다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순례자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와 기쁨,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순례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의 기도

주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고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엉거주춤 서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힘들어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순례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3.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고 있습니까?
4.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걷기 위해 오늘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 눈을 들라

시편 123:1~4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다 2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 인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 바라보는 대상과 자세(1~2절)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중에서 4번째 시편입니다.

특정장소로 이동을 결정함에 따라 이어지는 첫 번째 행동은 분명합니다. 눈을 들어 목표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몇 년간 살았던 몽골에서는 봄, 가을이 되면 종종 말을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 위에서 드넓은 초원을 내달리는 상상을 하며, 이것이야말로 말로 몽골에 살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제가 탄 말은 결코 초원을 향해 내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등에 누가 탔건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땅에 처박은 채 풀을 뜯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차가며 ‘의라의라’ 큰 소리로 의성어를 내뱉어도 꿈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본 몽골친구가 슬며시 다가와 말을 뛰도록 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고삐를 당겨 땅 위의 풀에 고정된 말의 눈(시선)을 드넓은 초원으로 향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말 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하루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세상과 구별 됨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Everyday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고 Sunday 크리스천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인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은 주님을 향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땅위에 사는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

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문제에 초월해 계시고, 위에서 내려다보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분. 세상 속에서 문제의 연속선상에 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함축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는 시인의 고백은 큰 신앙적 결단입니다. 칼과 살이 빗발치는 긴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언제 어느 방향에서 날아들지 모르는 칼날과 화살촉을 피하기 위해 전후좌우 분주히 시선을 움직일 것입니다. 동시에 입으로는 하나님께 도와 달라 투덜거릴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며 급변하는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일마다 예배드림과 이른 새벽 말씀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더없이 큰 신앙적 결단입니다. 시인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견고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의 거인의 집채만 한 칼날이 보았던 것입니다. 위협적인 상황과 환경 앞에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교훈하는 믿음 아닌 자의적 믿음.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상이었습니다. 반면 소년 다윗이 느닷없이 골리앗을 향해 나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삼상 17:45~47)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의 눈은 하나님만이 보았습니다. 그가 가진 참 믿음은  
보다 먼저 승리를 볼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  
로 눈을 들어 주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눈과 귀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분주히 쫓으며 입으로만 주님을 높이고 있지 않  
습니까? 이어 시인은 자신의 자세를 묘사합니다.

(2)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한국어 역본에는 생략되었으나 성경원문에는 감탄사를 의  
미하는 원어 **וַיִּתְחַנֵּן**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느낌  
이나 감정,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인 감탄사를 문장의  
가장 앞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자신의 강렬한 느낌 또

는 감정, 의지를 보다 분명히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역본 KJV 와 NASB 성경에서는 이 감탄사를 ‘Behold’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십시오(보아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음을 앞서 기억해야 합니다.

감탄사에 이어 자신의 자세를 종과 여종에 비유해 묘사합니다. 당시 물건으로 취급되어지던 종은 결코 주인의 눈을 쳐다 볼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직접 말하기 보다는 손짓으로 모든 일을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종은 늘 주인의 손가락에 시선을 고정해야 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의 움직임에도 종은 바지런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주인의 손짓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존재로 시인은 자신이 포함된 공동체를 낮춥니다.

하반절 ‘우리 눈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에서 눈을 빼고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라고 기록해도 해석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반복해서 ‘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서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눈’의 의미는 단순히 신체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원어(עין)은 사람의 마음의 지향, 관심과 열의를 포함합니다. 종합하면 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시각을 넘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으로 묘사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이유와 동기를 기록합니다.



## 바라보는 이유와 동기(3~4절)

(3a)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2절 후반 절에 이어 3절의 상반 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반복해 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강조를 의미하는데, 지금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힘주어 구하는 은혜를 번번마다 다양한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에서는 ‘자비’로, 공동번역에서는 ‘불쌍히’로 개역한글에서는 ‘궁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 은혜의 원어(מֵחַן 하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바라볼 때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선한 행동. 시인은 하나님께 심적 헤아림을 넘어 구체적인 도움을 힘주어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와 같이 행하는 동기를 기록합니다.

(3b~4)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는 사전적으로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멸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후자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를 갈거나 몸을 떨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멸시를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땅이 꺼질 정도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멸시 이상의 멸시, 심한 멸시를 받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더 없이 깊고 질적으로 악한 멸시가 시인은 넘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양, 그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를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와 ‘교만한 자들의 그 모멸’로 현대인의성경은 ‘부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경멸’로 표현합니다.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비웃음과 모멸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수를 쫓기 위해 복수의 날만을 생각하며 이를 가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조소와 멸시에 세상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송사와 더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상 공동체는 잘했다고, 이따금씩 혼쭐을 내줘야 한다며 조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시인이 보인 태도는 분명합니다.

(1)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한분을 거듭

생각해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짐승의 구유에서 생을 시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극심한 멸시를 거듭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나귀의 눈은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오직 아버지를 향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눅 23:46)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조소와 멸시를 하나씩 헤아려보니, 결코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지극히 작게 느껴집니다. 조소와 멸시는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닌, 참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자리에서 Everyday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 그의 이름은 우리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종이 되기를 거절한 체,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들어 시선을 맞추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금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 눈은 지난날 누구(무엇)를 향하고 있는 생각해 봅시다.
2. 우리 주변의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본문을 묵상하여 봅시다.
3. 조소와 멸시 앞에 우리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봅시다.
4.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우리 도움은

시편 124:1~8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 그 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6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술한 위기에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더라면(1~5절)**

오늘 본문, 124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5번째 시편입니다. 그리고 15편 중에 다윗의 시는 4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시편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죽은 후에 세워졌지만, 다윗의 시가 성전으

로 올라가는 노래로 사용된 것은, 다윗이 지어 놓은 시가 그렇게 불리는 것이 적합하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시편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하는 찬양시이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구원의 시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번역본들에서 이 시편의 제목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등의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씀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휴, 천만다행이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은 뒤집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고백은 시인 다윗이 한 것일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의 출애굽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노예는 당시에 재산 중에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제조공장의 초정밀 기계, 인공지능 기계와 같습니다. 그런 재산을 순순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왕이 변심(變心)을 반복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던 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강을 이루었던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일, 40년 동안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일 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에게 광야는 공동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와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하는 때는 헤르몬산의 눈이 녹는 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기여서 강물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 때에 흘러내리던 강물이 그쳤습니다. '요단강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싸움에 나갈만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서 아직 아물지 않은 때였고, 여리고성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팔소리와 함성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2)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절과 같이 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며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 일 날 뻔 했다는 것을 각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셨던 일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항해서(against) 일어날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 위에서(above) 일어날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대적들이 아군들과 대항해서 맞서 있는 것과 대적들이 아군들 위에 있는 것과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맞서 있으면 싸워볼만하다는 의미이지만, 위에 있으면 대적의 세력이 아군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의 군사는 불과 300명인데 반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무려 13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적들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편에 계시서 미디안 연합군들은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나 12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시인 다윗은 그와 같은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산 속에 난 오솔길을 보여주시고, 강을 건널 작은 배를 준비해 주셔서 건넌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겪게 되었을 일을 3중적으로 표현합니다.

(3~5)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 때에’를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대적)이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합니다. ‘삼키다’의 문자적인 뜻은 ‘씹지 않고 한 입에 먹다’입니다. 니느웨로 가야할 요나 선지자가 다시 스행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을 때, 요나는 제물이 되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습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살아남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펠리컨(사다새)와 같이 큰 새가 물고기를 비롯하여, 들쥐, 뱀 등을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다른 새들까지 먹습니다.

어떤 때는 저렇게 큰 먹이를 삼킬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먹이도 꿀꺽 삼킵니다. 뱀도 그렇고, 악어들도 그렇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물에 삼킴을 당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입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에는 물이 범람하여 강이 되곤 합니다. 그러한 곳을 ‘와디(wadi)’라고 합니다. ‘물’로 번역된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평소에 마른 땅이었는데 우기가 되니 여기저기에서 강이 되어 밀려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5절의 ‘넘치는 물’의 문자적인 의미는 ‘교만한 물’입니다. 굉장히 거센 물결을 ‘교만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영혼’이 삼킴을 당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엷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말로는 ‘설상가상(雪上加霜)\_눈 위에 서리가 또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으며,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악~, 하나님!”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때를 돌아보면, 그런 상황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깨닫곤 합니다.

### 술한 위기에서 지켜주셨기에(6~8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큰 일 날 뻔 했다면, 한 숨을 “휴!”하고 쉬고서, 6~8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노래 합니다.

(6)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참 표현이 생생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를 먹잇감으로 주지 않게 하신”입니다.

마치 강을 건너는 얼룩말이 악어에게 뒤발을 물려 악어가 물로 끌고 들어가면 악어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데, 악어가 웬일인지 입을 벌려서 그 틈에 물 밖으로 빠져 나온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요나를 삼킬 정도면 굉장히 큰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때에 몇 번 씹었다면, 요나는 살아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승전국은 패전국에 대해서 동정심이 없었

습니다. 패전국의 재산과 가축들을 눈에 좋은 대로 약탈했고,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시인 다윗은 그렇게 될 뻔한 민족적이 위기에서 구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 다윗의 노래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때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남을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7)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과거 복음성가로 참 많이 불렀던 노래 구절입니다. ‘사냥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수’가 아니라 ‘뺨을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무에 짐승이 걸리면 거의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그 올무에 ‘노루’나 ‘고라니’, ‘멧돼지’와 같이 힘이 센 짐승이 걸리면 힘을 써서 벗어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겠지만, ‘새’와 같이 힘을 쓸 수 없는 날짐승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올무는 더욱 조여 옵니다.

시인 다윗이 대적들을 사냥꾼에, 자신들은 새에 비유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얽어매어 올무에 걸리게 하는 ‘사냥꾼’과 같은 것들은 참 다양합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일 수도 있고, 바르지

못한 습관일 수도 있고, 과도한 경쟁심일 수도 있고, 세속적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은 전부 ‘사냥꾼들’입니다.

그런데 올무에 매였던 것과 같았던 새가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올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끊어지다’는 말은 올무의 어느 부분이 ‘잘라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다’는 뜻입니다. 올무가 헐거워지거나, 어느 한 부분이 끊어져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면, 그 새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무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은 새가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올무를 끊어주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습관이나 일이라는 올무에 걸려 있을 때, 자신이 충분히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나 일에 깊이 매여 있을수록, 올무에게 강하게 매여 있을수록 외부에서 그것을 도와주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올무에 매인 새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_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을 축소하면 ‘우리 백성을 지으신’이고, 더 축소하면 ‘나를 지으신’입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단 8절로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시를 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깊이 감사하며,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날카로운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으며,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이라는 올무를 산산조각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도, 홍해를 건너는 일도, 광야를 지나는 일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셨다면 블레셋이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삼킴을 당했을 것이고, 바빌로니아라 하는 올무에 걸려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도, 우리를 삼키려고 했던 것이 삼킬 수 없었음도, 올무에 걸렸던 새처럼, 우리가 올무에 걸렸을 때에 올무가 끊어지는 은총을 경험했던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편인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은총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인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2.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의 울무에 매인 것과 같이 당신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일,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울무를 끊어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편 125:1~5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  
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3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  
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4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5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안전 (1~3절)

오늘 본문, 125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6번째 시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뚜렷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음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의지하다’는 동사는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기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안한 것은 바닥에 기대는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 기대는 면적이 넓을수록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 목욕탕에 가 보면 벽에 써 붙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맡기고 나면 편안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면 언제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보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자신이 더 잘 인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도해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태도는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조수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

이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폭풍이나 강한 비바람이 불 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0월6일에 불었던 태풍 ‘콩레이’가 남부지방을 통과할 때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빌딩의 유리창이 수백 장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바람이 유리창은 깨뜨릴 수 있어도, 건물 자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온산에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나무가 뿌리째 뽑힐지라도, 시온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영원히 견고한 곳의 상징입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죽은 순간까지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함’과 ‘유한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또 아무리 뛰어난 총명함을 지닌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인은 불안함과 유한함의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다

조선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는 수도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개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도(遷都)를 하게 되었는데, 물망지로 떠오른 곳은 지금의 육군, 해군, 공군 등 3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였지만, 최종적으로 낙점된 곳이 한양이었습니다. 한양은 한강을 끼고 있어서 물을 얻기가 쉬웠고, 한강이 아주 큰 강이라 지방에서 세금 등으로 올라오는 물자를 공급받기도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쪽에는 북한산과 도봉산, 수락산 등이 있고, 남쪽으로는 관악산, 청계산 등 산으로 둘러싸여서 외적이 침입했을 때 방어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으로는 감람산(올리브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스코퍼스산, 그리고 남쪽에는 르바임 골짜기, 서쪽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어서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는 무려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긴 세월동안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던 것

입니다.

이처럼 여러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가며 지켜주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 23:4~5)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죽음이 다윗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자기 주위를 둘러 진치고 있어서 공격해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있는데, 원수들이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켜도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쳐 주셔서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3)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3절은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의 권세가 의로운 사람들의 기업(땅)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존 버니언(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할 도시를 떠나 영원한 도성(都城)인 시온산을 향해 가는 것을 그린 우화소설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순례길을 가다가 ‘고난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데,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돌아오는지를 물었더니,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있어서 물려 죽을까봐 되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곳에 이르렀더니 실제로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자가 묶여 있어서 한 가운데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자를 보고서 지레 겁을 먹고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도, 아무리 사자가 삼킬 사람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묶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사자가 해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

나님의 약속입니다.

###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안전 (1~3절)

시인은 1~3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고서, 이제 4~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 (4)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는 단지 착함만이 아니라 신앙의 미덕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곧고 평평한 길을 걷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는 신앙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대’, 선하게 대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므나 비유’가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1므나(약 3개월 치 임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귀인이 돌아와서 보니, 어떤 종은 1므나로 10므나를 남겼고, 또 어떤 종은 1므나로 5므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1므나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귀인은 그 종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므나 또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5)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이다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4절의 ‘정직한 자’와 반대의 사람입니다. ‘굽은 길’은 ‘곧지 않고 구비 구비 휘어진 길’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욕망의 길, 죄악된 길’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언제나 ‘자기의 굽은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 길은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얽매인 길이고, 자신을 속박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보면 알게 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이다”라는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걷는 정직한 자’이자, 1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며,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며 주변에 둘러 있는

산들을 바라보며, 그 산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 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흔들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 한 구석에 있는 두려움은 몰아내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도 그것은 이내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어서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여러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에 둘러싸여 사는 한 날이 되고, 그런 우리의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많은 재산이나, 크고 작은 권력들, 또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늘 두려움과 허전함으로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라옵나니,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서는 세상의 그 무엇을 치장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묶음으로 맡기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굽을 길을 걷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았다가 삶의 흔들린 경험이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던 경험을 한 적은 언제이었습니까?
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르고 계신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3. 당신을 선한 마음을 가진 정직한 길이 아니라,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게 하는 습관이나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7

#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시편 126:1~6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  
 도다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였  
 도다 3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4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  
 셧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5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7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 포로에서 귀환 때의 감격 회상(1~3절)

오늘 본문, 126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  
 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7번째 시편입  
 니다.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빌  
 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오던 당시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  
 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포로 귀환 지도자에 의해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볼을 꼬집어보았도다.”입니다.

B.C. 539년에 고레스 왕은 바빌로니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B.C. 538년에 귀환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감격적인 모습을 역대하 36:23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조서가 발표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에서의 삶을 정리했고, 그 이듬해인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따라서 49,897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차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79년 후인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로 돌아왔고, 또 14년 후

인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와 3차의 간격은 9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왕이 귀환명령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왕이 조서를 내린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은총과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레미야 32:41절에 근거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를 바빌로니아의 손에 넘길 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왕이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유다의 귀족들도 몰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 참담한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 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인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어,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혔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상반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해 주셨습니다.”입니다. 이것은 2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과 찬양이 반복해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포로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기쁨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를 요즘 말로 하면, 재벌기업인이나 막대한 자산을 가지신 분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내 놓았을 때에, “통



큰 기부를 했다.”고 표현하곤 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통 큰 역사를 행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깜짝 놀랄만한 ‘통 큰 역사’를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것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 43: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당시에 애굽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규모로 하면 대한민국과 중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맞바꾸셨다고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스(에티오피아)와 스바까지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통 큰 사랑의 낭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유다 자손들의 감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낭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같이 형편없는 사람들과 맞바꾸신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피를 내어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4~6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던 사건을 돌아본 시인은 4~6절에서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시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은 ‘네게브’인데,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네게브 지역에는 건기 때에는 마른 골짜기와 같아서 통행로로 이용이 되다가, 우기 때에는 내린 비로 인해서 강이 되는 와디(wadi)들이 있었습니다. 시인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은 건기여서 마른 땅과 같지만, 우기에는 많

은 비가 내려 물이 힘차게 흘러내려 강이 되는 것처럼, 아직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물밑 듯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갔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모두 돌아와 온전한 시온이 건설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약 100년(93년)간 3차에 걸쳐서 유다로 돌아왔는데, 1차에만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돌아왔고, 2차에는 불과 1700여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눌러 살았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끌려서 갔을지라도, 거기서 수십 년을 살게 되니까, 그곳이 유다보다는 훨씬 강대국이니 적응하여 살기가 편해졌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형성하게 되어 돌아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돌아가면 성전도 다시 지어야 하고,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그 불편한 삶을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물기를 많이 머금은 축축한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도 씨를 뿌리고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치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쉽지 않을지라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멈춘 지가 이제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서양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마른 땅에도 씨를 뿌리는 것처럼, 진리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씨앗이 바로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비록 잘 보지 못했더라도 울며 나오면, 그 학생은 다음에 시험을 볼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 보지 못하고서도 해죽 해죽 웃고 나오면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한다면 다음번 시험을 볼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것은, 이전에도 뿌렸음에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좋은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

을 것을 소망하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비록 지금은 힘들 지라도 반복해서 씨를 뿌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격려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이 시를 노래로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황량하게 보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날을 꿈꾸며,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다 복음을 먼저 받은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에도 동일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또 우리의 부모님이 복음을 먼저 받으시고 눈물로 말씀을 심고, 울며 기도를 심어주셨기에 우리 가정이라는 단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울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심어야 할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심고, 울면서라도 바른 삶을 살아내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일은 꿈같은 일이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도 중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고, 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웃음과 찬양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척박한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울며 기도를 심어주셨기에 오늘의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옵나니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뿌려야 할 것을 바르게 뿌리게 하시고, 울면서도 심어야 할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 이 땅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 분량만큼의 뿌려야 할 것을 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당신이 눈물을 흘릴지라도 뿌리고 심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뿌리고 심어야 할 것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1~5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1~2절)

오늘 본문, 127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8번째 시편입니다.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10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4편은 다윗이 기록했고, 나머지 1편, 오늘 본문이 바로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왕이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었고, 그 위에서 영토도 더 확장하고,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께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가서’는 젊은 시절에 기록하였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절정에 이르렀던 중년에 기록한 것은 ‘잠언’이고, 인생을 많이 산 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과 5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가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바이트)’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집 건물(하우스, 빌딩)’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가정(home, household)’으로도 쓰였고, ‘국가(國家)\_나라의 집’로도 쓰였고, ‘성전\_하나님의 집’으로도 쓰였습니다.

그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성전(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유다가 망할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고향이었고, 하나님을 만

나는 ‘만남의 광장(meeting point)’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13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국가(나라의 집)가 경제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국가가 군사력으로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수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과수원지기’로도 번역할 수 있고, 밤새 양 떼를 지키는 ‘목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과수원지기가 원두막에 앉아서 아무리 불꽃같은 눈으로 쳐다본다 할지라도 전체 과수원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목자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들에 있는 양 떼를 지킨다 할지라도 밤에 여우나 늑대, 사자와 같은 맹수가 양 떼를 물어 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서 6장은 솔로몬왕에게 왕비가 60명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에게 후궁(왕비)이 700명이나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60명이든, 300명이든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면, 그 여인들에게 작은 집이라도 하나씩 다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이 집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방나라의 공주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믿음의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음에도 그는 집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집(가정, 국가, 성전)을 세

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멋 있고,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세운다할지라도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켜도 지킬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졸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살핀바와 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다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라고 말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자신이, 아니 자신의 재산이 자기 집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a)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마 사람들은 2절 전반절의 내용으로 성공의 3요소를 말할 것  
입니다. 첫째 일찍 일어나기, 둘째 늦게 잠자리에 들기, 셋째 수  
고의 떡을 먹기입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표현하면, 불철주야(不  
徹晝夜)와 동분서주(東奔西走)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일하기와  
여기저기에서 일하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  
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근면, 성실, 부지런한 삶이 불필  
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절에 있는 말씀  
처럼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된다는 것  
입니다. 고린도전서 15:58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리  
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  
고,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  
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헛  
됨이 없는 수고는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들이라고 하니다. 왜냐

하면 그 수고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가치로 승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2b)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이 부분을 표준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욕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세우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 자녀양육의 주관자 하나님(3~5절)

고대에 하나님께서 복주심의 대표적인 예가 ‘자녀’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세우심과 지키심을 강조합니다.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은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의 결과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기업’은 ‘상속받은 재

산’, ‘물려받은 소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유산, 상속이라는 말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 재산이 나에게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유산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상급’의 문자적 의미는 ‘임금’, ‘샅’이라는 의미이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상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젊었을 때에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은 그 부모가 늙었을 때에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더 장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손’이나 ‘팔’은 ‘힘’을 의미합니다. ‘장사(장군)’의 손은 얼마나 그 힘이 역세겠습니까? 게다가 그 손에 화살(무기)까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화살통에 화살도 가득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건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고대에 중동에서 재판은 성문이 있는 곳에서 열리곤 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자신이 분명히 옳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을 때, 상대가 인상이 험악한 거짓증인들을 여러 명 세울 때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건장한 아들이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호위무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지은 지혜시이기도 하고,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로 불렀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당시 순례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왕이 국가가 경제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국방력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거나, 힘이 있으면 가정이 지켜진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읊조리며 성전을 향해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를 다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과 상급으로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

니다. 이 자녀들이 손 안에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 날아가기 전에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순례자로서 매일 매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 쌓은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 각자의 시편 127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왕이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城)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의 집(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함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 승화시켜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으로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장성하였을 때에 진리를 향해 날아가도록,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자녀를 낳기 원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업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목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2. 당신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3. 최근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자녀(손자손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양육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자녀를 갖게 된다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5.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9

# 일상에서의 복

시편 128:1~6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 복되어라(1절)

오늘 본문, 128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9번째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keyword)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형통', '번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짧은 여섯 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되니, '복'의 시편처럼 이해되기 쉽습니다. 소위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시편으로 곡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복'을 받고 싶은가? '형통'과 '

번영'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적용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론적 시편이 전혀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을 '복' 받는 방법과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아쉬레'(복되어라!, 행복하도다!)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원문을 그대로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어느 누구나(1절)' 이 구절은 흔히 곡해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의 방법과 조건을 말하고 있는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참 복 있구나!, 이 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감탄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참으로 복되어라!" 그런 감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누구나, 모두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28편은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순례 길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순례자들을 향해, 그리고 순례하는 자신을 향해 '참으로 복됩니다!' 선언, 축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 복있는 자의 모습(2~4절)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그 복있는 사람의 모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환상적이지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박합니다.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2) 이 모습이 복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금 실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조차도 '복'에 대한 이해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듯 합니다. '복'하면 크고, 거대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아니 차고 흘러 넘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복'이 '욕망'과 '대박'의 대체어가 된지 오래입니다. '욕망'의 그릇이 크기에,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을 '복' 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수고한만큼 먹는 것이 '복'되다. 도대체 얼마나 더 먹어야 '복' 되겠는가?' 전도서 3:13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3: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한만큼 낙을 누리는 삶, 넘치도록 쌓아놓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조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 하루 수고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또한 놀랍습니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조출한 일상이요, 평범한 살림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이 둘러 앉아서 식사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향해 "복되여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우님,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복'을 찾고 살기에, 야단법석 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복'을 좇아 살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입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과 마주하며 둘러 앉아 '우리 가족이 이 얼마나 복된가! 아내만으로, 자식들만으로도 풍요롭고 평화롭도다!' 그렇게 노래 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소박합니다. 조출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복되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이며, 그 모습을 '복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4, 공동번역) 보아라, 아휘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히네, 히브리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 삶이 그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그 '복'은 일상적이고 소박한 것임을 말입니다.

### 축복 기원(5~6절)

(5~6)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축복의 기원입니다. 성전 제사장이 순례자를 향해서 일종의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온, 그 복된 순례자를 향해 흐뭇함으로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5~6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6, 메시지성경)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누리라, 평생토록,  
손자 손녀를 보며 행복을 누리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고 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죽음도 마다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크

고 화려한 과욕의 '복'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에서 소박한 복을 누리며, 노래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욕심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고민과 염려, 두려움과 한탄의 원인이 욕심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으며, 오늘의 일상에서 소박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을 한문장으로 정리해봅시다.
2. 내가 전에 생각했던 '복'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다릅니까?
3. 당신은 '복된 사람'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호와와 그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편 129:1~8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3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4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5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6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7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8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와 그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심 (1~4절)

오늘 본문, 129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10번째 시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시온을 침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작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B.C. 538년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으로부터 시작된 포로 귀환의 감격을 체험한 시인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 의한 굴욕으로부터 구원된 사실을 돌이켜보며, 미래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수치와 패배를 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필연적으로 주변의 여러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처해 있었기에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3)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고랑은 깊은 상처, 혹독한 고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깊고 고통스런 상처를 상징하는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표현은 대적들의 잔혹함과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지를 강조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풀 밀리는 일상기도 책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무력감이 생기지만 그 무력감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은 냉소, 교만, 정욕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들을 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진정한 자아를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광야의 가장 귀한 선물은 그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 (4)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악인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서 2절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으신 영원하고 절대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창12: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와 같이 점점 광범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확장시켜 주시며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언약에 의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사, 찻디크는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깊고 은밀한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끊으셨도다는 더 이상 연결이 불가능한 절단과 파손의 상태를 말합니다. 대적들에 대하여 완전한 파멸과 심판으로, 속박하는 모든 것들을 끊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앞이 짝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은 장차 파멸하게 될 것임 (5~8절)  
5절부터 8절 말씀은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성전이 있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대적들은 완전한 낭패와 수치 가운데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6~7)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지붕의 풀은 약간의 습기로 인해 잠시동안 풀이 자라지만 해가 뜨고 습기가 마르면 즉시 시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악인의 끝은 허무합니다. 추수꾼들이 한 손으로 곡식단을 쥐고 낮으로 힘껏 밀동을 베며, 그것을 점점 품에 채워 나가야 하는데, 악인의 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8)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대적들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자들임을 강조

합니다. 악인들의 파멸과 비참한 결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느냐, 가까이하고 있느냐입니다.

(시 73: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복임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잠시 거처가야 할 곳을 알았던 순례자들은 시편을 외우면서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는 절망 뿐이기에, 유일한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을 표준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4, 표준새번역)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참된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면서 고난을 견디는 법도 배웁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신기한 것은 더 침착하게 되고 정리가 됩니다. 고난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더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풀 밀리는 일상기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유일한 길은 영적 가면을 완전히 벗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영적 가면을 벗겨줄 것입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야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만 하나님의 복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지고 부서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랫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고 붙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지고 부서졌다면,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시고 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의 삶에 개입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가정, 내가 밟고 서 있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구별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

우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처럼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경험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인생의 고난과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셔서 이 시간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만지심만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고 묵상해보십시오.
2. 시인은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시인은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 주셨습니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끊으시고, 풀어 주신 것, 회복시켜 주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4. 순례자인 시인은 고난 속에서 의로우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시편 130:1~8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5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7 이 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지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 깊은 곳에서의 참회와 용서의 간청(1~4절)

오늘 본문, 130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11번째 시편입니다. 이 시편 역시 누가 기록하였는지, 언제 기록하였는지, 어떤 일을 배경으로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은 굉장히 신약적, 이신칭의적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기예,

하나님께 용서해 주심을 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모두 7개(6, 32, 38, 39, 51, 130, 143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30편은 6번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오늘 본문이 시편을 구원의 교리를 잘 담고 있다고 하여, 32, 51, 143편과 더불어 ‘바울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에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24일이 있는 주일에 감리 교회에서는 웨슬레 회심 예배를 드립니다. 웨슬레가 회심하던 날에 세인트 폴 교회(St. Paul’s Cathedral)로 갔는데, 성가대에서 시편 130편으로 만든 곡인 “내가 깊은 곳에서(Out of the depths)”를 찬양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웨슬레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브리말 문장 구조는 동사를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명사, 전치사구 순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언어에서 그러하듯이 어떤 단어나 구를 강조할 때에는 그것을 앞세웁니다.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깊은 곳에서’입니다. 시인이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깊은 곳’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아주 높은 산의 아래쪽 골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바다 속의 심연’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래가 잘 보

이지 않는 ‘수렁’을 의미하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공통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깊은 곳’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4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바로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같은 깊은 곳’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예기치 않게 올 때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 죄와 허물의 결과로 옵니다. 그 때에 시인과 같이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삶을 고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든지 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산 결과로 맞게 되었든지 ‘깊은 곳’을 잘 통과하게 되면, ‘깊은 인격’,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인격적인 자산, 영적인 재산이 됩니다.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들으소서’, ‘기울이소서’를 말하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깊은 곳에서 건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1절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현존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을 “주여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주인’, ‘소유자’,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1절의 기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깊은 곳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라는 의미라면, 2절의 기도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십시오. 좋은 주인이 책임져 주시듯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게 된 원인이 천재지변과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거나, 욕이 당한 것처럼 ‘묻지 마 환난’과 같은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꿈꾸다가 당하게 된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복수(複數)로만 사용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단수·복수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영어성경에서는 대부분 복수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자신에게 허물이 있음을 자인(自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아주 처절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주 또렷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용서’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하심, 그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용서나 다른 신의 용서는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이 건져 올려 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영어로 “Your Kingdom come”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세상의 제국’은 아무리 자주 와도, 또 아무리 크게 와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용서를 받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을 공동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

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까닭은 그것 자체가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쉼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과거)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을 통해서 이제 부터는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 개인과 민족의 용서해 주심을 기대(5~8절)

시인은 자신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음도 알고, 거기에서 건져 올려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다’는 표현에서 초점은 ‘기다리다’에 있지 않고, ‘여호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거나 도움이 되더라도 약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다리다’는 동사는 이사야 40:31의 “오직 여호와를

양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에서 ‘양망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다리다’  
는 동사의 문자적인 뜻은 ‘줄로 묶다’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  
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은 동의어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강조해서 다시 고백합니다.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에서 ‘경계’는 군인들의 생명과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말했다고 알려지  
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  
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군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경계근무를 셉니다. 그런데 경계를 제  
대로 서려면, 겨울에는 혹한의 추위와 싸워야 하고, 여름에는  
혹서의 더위와 그리고 모기와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계  
를 제대로 서려면, 잠(졸음)과 싸워야 합니다. 새벽 3~4시가 되  
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쏟아져 오고, 눈꺼풀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는 말이 수수께끼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파수꾼은 먼 곳에 동이 트는 것을 손  
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보다도 더욱 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파수꾼이 졸지 않으려고 쏟아지는 잠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쏟아지고, 한 없이 무겁게만 여겨지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가능한 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 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도 동일해야 함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 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도 동일해야 함을 말합니다.

(7~8)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헤세드)’은 ‘언약(계약)’으로 맺은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unfailing love)’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하기에 하나님의 속량하심(대가를 주고 사다)도 풍성합니다. 풍성한 속량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우상숭배의 나라’나 ‘자신의 제국’, ‘세속적 가치관의 제국’을 꿈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나 임금이 되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영역이 되게 하겠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순례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제국을 꿈꾸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다스리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깊은 곳에 빠지는 일은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세상의 나라를 꿈꾸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0편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인 것 것은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사는 순례자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기다려,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여 ‘나의 제국’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더욱 처절해지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며 나의 제국을 꿈꾸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맞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다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 남은 생애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깊은 곳’에서 부르짖은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 내가 내 인생의 임금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유하심(용서하심)을 경험한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3. 경계근무를 서는 초병(파수꾼)은 아침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젓 떼 아이와도 같도다

시편 131:1~3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젓 떼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젓 떼 아이와 같도다 3 이  
 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 131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12번째 시편입니다. 그리고 15편 중에 다윗의 시는 4편(122, 124, 131, 133)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째 시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순례자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신앙인으로 겸손을 다짐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노래하는 감사시이면서 예배시입니다.

(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인 다윗은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라고 부정어를 3번을 쓰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굳은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교만하다’는 단어는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말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드러다 보면 다윗은 자신을 과대포장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대승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왕을 환영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군신관계가 아니라 정적으로 보았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아니라 왕위를 노리는 사람으로 여겼기에 척결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려 뽑은 군인(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뒤를 보기 위해서 한 굴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그 많은 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서 말하기를 “임금님, 누구의 뒤를 쫓으십니까? 임금님이 쫓으시는 것은 죽은 개와 벼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임금을 위협하는 신하 정도가 아니라 죽은 개(살아있는 개도 아닌)와 벼룩과 동일시를 했습니다.

또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을 때, 사울의 군대가 그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날 밤에 사울의 군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 저으며, 사울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고 멀리 가서 이르기를 “임금님, 임금님께서서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러 나오셔서 벼룩을 수색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다윗은 자신을 사울왕의 자리를 넘보는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벼룩’에 동일시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한결같이 자기를 크게 여기고 포장하여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만하다’는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여겨서, 선을 보라고 해도, 상대가 부족한 부분을 조목조목 집어가며 튕길 때,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에,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오만’은 쌍둥이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자신보다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눈을 통해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큰 일’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놀라운 일’은 ‘과도한 업적을 남기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고,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큰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16:5~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몫)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윗은 지금 자신의 땅(이스라엘)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지금보다 2배, 3배가 되게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대제국을 건설하고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게 해 달라고 과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의 제물이 되며,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젓 떤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젓 떤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과도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으니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합니다.

‘고요하다’는 ‘중지하다’, ‘가만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온하다’는 ‘평평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평평하게 하는 것은 곧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눈이 오만해 지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을 쓰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든지 달려 가려고만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특히 남자)들은 자동차의 성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얼마나 크고 좋은지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엔진(액셀러레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액셀러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는 이기(利器)가 아니라 흉기(凶器)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동을 했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장막을 쳤습니다. 불기둥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액셀러레이터라면, 구름기둥은 그들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하나로만 인도하지 않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개의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개의 기둥이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젓 떼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젓먹이 아기와 젓 떼 아이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젓먹이 아기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먹는 일과 자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먹고, 먹으면 잡니다. 물론 아기가 먹는 모습, 자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그 부모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젖 떤 아이는 잠자리와 젖이 필요하지 않고, 그 엄마(와 아빠)가 필요합니다. 잠자리와 먹을 것은 자신이 칭얼대지 않아도 엄마가 챙겨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 안, 아빠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대로 된 것, 바른 것이라면, 자신은 굶어도 아이는 먹이고, 자신은 헐벗어도 아이에게는 입힙니다. 부모가 이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지겠습니까?

(신 1:30~31)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2014년 우리 100주년기념교회 표어(먼저 가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안 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이 인도해주셨기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도 품어주셨고, 우리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다’는 단어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희망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형이 되면, ‘소망’이 됩니다. 이 3절은 시편 130:7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두 말씀이 동일하지만, 그 적용은 정반대입니다. 130편에서는 시인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지 않음을 알기에, 또한 자신이 아무리 멀리 나갔더라도 하나님은 되사오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은 시인 다윗이 ‘깊은 곳’에 있다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고, 만족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는 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상황, 다른 의미의 이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30편의 시인처럼 ‘깊은 곳’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세상을 기다리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하는 일 잘 되고, 크게 어려운 일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고 생각이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깊은 곳’에 있을 때보다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깊어집니다.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읊조리고,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 있든지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을 갖지 않으며, 내 욕망을 이루어 줄 허황된 일을 벌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 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 떤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젖 떤 아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혹 교만하고 오만하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겪었던 일은 없습니까?
2. 혹 교만을 품지 않고, 오만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은 없었습니까?
3. 적 떴 떴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하나님께 안겨  
있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 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시편 132:1~18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2 그가 여호와  
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  
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  
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6 우리가 그것이 에  
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7 우리가 그의 계  
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8 여호와  
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10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쁨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1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  
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들지라 12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  
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  
리라 하셨도다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  
를 원하였음이로다 15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16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  
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17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

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8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  
리라 하셨도다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 회상(1~12절)  
오늘 본문, 132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13번째 시편입니다. 그리고 15편 중에서 길이가 가장 깁니다. 이 시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전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열망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타나고 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봉헌 때에 드린 기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껌손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다윗의 ‘껌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껌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난’, ‘고통’, ‘낮아짐’, ‘압박’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성경에는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고, 표준새번역성경은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영어성경들에서도 ‘껌손’을 ‘고난, 어려움’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짓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지만,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졌던 산,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온산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중에서 시비를 거는 민족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평안함을 최대한 즐기려고 했을 것인데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텐트에 살고, 하나님의 궤도 성막(회막)에 있어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박이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생활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그는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NO!”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신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거룩한 고민, 구별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 1절이 ‘검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짓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2~5)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즐겁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삼하 7:2).”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맹세하다’와 ‘서원하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서원은 ‘야곱의 전능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야곱인 것은, 성경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한 최초의 사람이 야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 집안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노중(路中)에 한 곳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삼아 누웠는데,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벧엘(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돌아올 때도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인은 야곱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다윗이 기억하고 행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얼마나 간절하고 강하였는지를 다윗의 말, 1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침대에 오르지 않을 것이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쪽잠이나 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며칠 만에 죽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간절하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발견한 것과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의 기쁨을 회상합니다.

(6~10)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언약궤는 기랴여아림의 산림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것(언약궤)을 ‘나무 밭’에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그 긴 세월동안 방치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을 2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면 온갖 잡목과 잡초가 무성해 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곳을 한 번도 와 보지 않은 사람이 특정한 선교사의 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20년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동하고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기쁨을 배가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맹세하시며 언약하셨습니다.

(11~12)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들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은 ‘성전~하나님의 집(House of God)’을 세우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_다윗의 가문(family of David)’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

었는데,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하심은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기 위함 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줍니다.

#### 시온을 향한 강복의 회상(13~18절)

13~18절은 앞으로 다윗 언약이 실현될 시온을 향한 복을 회상합니다.

(13~14)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온산성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곳을 원하셔서 “이 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 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 단지 다윗이 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오래가고,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쉴 곳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16)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니

15절이 물질적인 복주심의 약속이라면, 16절은 영적인 복주심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에 물질적인 풍성함은 솔로몬의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돈)이 돌같이 흔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다른 도시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에도 탄광 도시나 철강 도시, 조선(造船) 도시 등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했던 표현이 “그 도시에서는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복주심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곳이, 예배공동체, 구원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18)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왼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뿔’은 ‘힘’, ‘권위’, ‘번영’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게 하듯이, 다윗의 후손도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읊조렸던 시편 중에서 가장 길고, 반복도 됩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다윗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 성전이 세워져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수요성경공부, 새벽기도회, 각종 기도회와 각종 성경공부 등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이 은혜로울 수 있음은, 누군가가 그 예배와 성경공부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

다. 아무도 수고하고, 섬기지 않음에도 은혜롭고 풍성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따뜻하고, 친밀하며,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들 모두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일을 외면하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면 이내 그 가정은 불화의 현장이 되며, 가족들은 견원지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 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역사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특히 온 나라도 통일하고, 외적의 침입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집이 없으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동 성전인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역사가 흘러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2.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간절한 소원이나 기도제목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승화되었습니까?
3.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의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문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시편 133:1~3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본문, 133편은 120~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14번째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15편 중에 다윗의 시가 4편(122, 124, 131, 133)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시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땅 시온에 올라와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 영생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되찾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그간 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형제’는 좁은 의미로는 ‘혈연’, ‘혈족’ 등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 백성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주년기념교회에서도 교회의 일원이 되면 ‘새가족’이라고 부르고, 격월로 ‘새가족환영회’를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외동아들’, ‘하나님의 외동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싸우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투었던 이야기,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하게도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가 신앙의 문제로 인함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와 누구의 신앙행위가 더 바른가의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집단으로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

에게 넘겨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신앙인의 표상이 되는 다윗도 그 형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구박덩어리로 보였고, 미운털이 박힌 존재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오빠가 이복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여동생의 오빠가 이복형을 죽이는, 보통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가 아니라,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악하고, 추한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지라도 그것은 그 개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빠져 나와 개별적으로 행동함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공동체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엡 4:1~3)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에서 ‘합당하다’는 ‘어울리다’의 의미입니다. 사람들마다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삶, 가정주부에게는 주부에게 어울리는 삶,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읊조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먼저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 기름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 가정에서나 사용하거나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기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도 없는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은 제사장이 임직을 할 때에 부어서 사용했는데,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라는 의미로 ‘관유(灌油)’라고 불렀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 관유가 사용되는 모습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출 29:7~9)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관유\_구별된 기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왕이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며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하논왕이 신하들의 왜곡된 조언을 듣고서 조문사절단의 수염과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잘라서 수치를 주었습니다. 더구나 수염을 전부 깎아버린 것이 아니라 절반만 깎고서 돌려보냄으로 극도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암몬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여리고에 그들을 머물게 하여, 수염이 자라고 나면 오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조문사절단의 무너진 권위를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아론의 수염은 권위는 물론 영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옷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수염’, ‘옷깃’은 모두 대제사장과 관련되고,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즉 보배로운 기름인 거룩한 기름이 거룩한 몸의 상징인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구별된 옷을 타고서 바닥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은 기름부음을 받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례길에 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제사장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

서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대제사장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음’을 말하고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a)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혈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산들에 내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2절의 그림언어가 ‘기름’이었다면, 3절에서는 ‘이슬’로 표현합니다. 혈몬산(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레바논에 걸쳐 있는데, 해발이 2,814m로 백두산보다는 70m가 더 높고, 한라산보다는 864m나 더 높습니다. 1년 중에 8개월 이상이 눈으로 덮인 혈몬산은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는 산으로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혈몬의 이슬’은 ‘많은 이슬’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3절은 2절의 말씀과 좋은 대구가 됩니다. 혈몬산은 아론에 해당하고, 이슬은 기름에, 시온의 산들은 옷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슬(물)은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혈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생명)이 낮은 산과 언덕과 같은 시온의 산들,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 생명이 움트는 토양으로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배로운 기름과 혈몬산의 이슬을 기억하며 이 시편을 읊조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슬로 적셔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b)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이슬을 적셔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려주신 복이 '영생\_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구원공동체이고, 영원한 생명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참 소중하고 값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내리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혈몬산의 이슬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 생명이 움트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의 현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방마다, 공간마다 그리고 가족들의 관계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험몬산의 이슬이 덮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구역식구들, 봉사자들,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렸던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시온의 산들에 내렸던 이슬이 덮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시편 133편이 구현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와 같은 고백은 언제 어디에서 해 보셨습니까? 만약 없다면 어디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2. 당신의 삶 가운데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는 일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된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3. 당신의 삶 가운데 혈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은 일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4:1~3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보라 밤에 여호와와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2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성전 순례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세 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때 다른 지역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오가며 부르던 노래들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라고 합니다. 본문은 그 마지막 노래입니다.

시편 134편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화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1절은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남아서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 2~3절은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해, 배웅하는 레위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타인을 향한 당부와 격려와 복이 임하기를 노래함으로 예배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예배의 끝은 내가 바뀌고, 내가 잘하고, 내가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타인을 걱정해, 타인에게 당부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복이 임하길 바라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나를 보던 눈을 잠시 돌려,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예배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 예배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를 살피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 불러야 합니다. 먼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1절)

(1)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작은 방들이 있어 그곳에서 머물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2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6~8절은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레위인들 중 일부는 성전 기물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키며, 등불 기름을 끊이지 않게 보충하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은 성막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이라 설명하는 곳은 길이 4.56미터(10규빗), 너비 4.56미터(10규빗), 높이 4.56미터(10규빗)로서 흔히 설명하는 평수 단위로는 6.3평의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밤새 불침번을 서던 레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잠들어 고요한 그 시간, 한 사람이 일렁이는 등불을 주시합니다. 불빛이 비추이는 곳을 바라봅니다.

여섯 덩이씩 두 열로 놓인 빵들을 봅니다. 야식이 생각나지만, 입맛만 다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작은 향단에서 나오는 향기가 몸에 뱉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깨어납니다. 정해진 시간이 오기까지, 거

룩한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오감을 총동원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홀로 드리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순례자들이 '홀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이름 없는 레위인'을 감사해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막은 성전이 되었고 공간은 넓어졌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밤에 있던 그 얼굴의 표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이리저리 옮기며 서 있던 그의 다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리하지 않았을 터입니다. '여호와와의 종', 자신이 하나님의 종 됨을 망각했다면 이리하지 않았을 터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높임 받으셨고, 백성들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인사합니다. '보라'. '여호와와의 종들이다' '너희의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믿고 살아가겠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이름이 아닌 '여호와와의 종들'로 불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간 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아, 사무엘아'. 대답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세 번이나 불러주십니다.

(삼상 4:10~11)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우리 교회에도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높임말을 써주는 목사들과 다르게 '아이'라고 불린 사무엘처럼 '저기요', '아저씨', '아주머니', '아가씨'로 불리는 봉사자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분들이 홀로 자기 자리에서 직무를 감당했기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새벽에 마음과 정성과 땀과 시간을 내어 홍보관예배실에 모여 기도의 기름을 교회에 채우는 모든 분의 이름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봉사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 너희 손을 들고(2~3절)

(2)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로, 2~3절은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해 남은 레위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는 항상 ‘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뒤로 돌아서 비틀비틀 걸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이나 불안 가득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지향점을 항상 예배에 맞춰야 함을 기억하자는 당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8~39절에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시라 갇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을 향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행위대로 갇으시기를’ 소망하며 ‘이에 걸맞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 (3)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인데, 1~2절에서 ‘송축하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즉 여호와를 바라크하라, 여호와를 바라크하라, 여호와께서 바라크해주시길 것이 노래 후렴구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찬송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몸

을 굽혀 우리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남겨진 이들은 떠나는 모두에게 복이 임하길 바라며 뒷모습이 아스라이 사라질 때까지 2~3절을 불렀을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이다.” 주실지이다. 주실지이다. 그 노래가 돌아가는 모두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순례자로 여기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레위인을 부르고 축복하는 이. 자신을 레위인으로 여기고 각자의 자리로 향하는 모두에게 노래하는 이. 정기적인 예배를 기준으로 우리는 때로는 순례자가 되어, 때로는 레위인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노래하고 섬기며 복이 임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해진 예배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고 있는지 말씀들을 통해 돌아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홀로 밤을 지키던 레위인이 되어, 때로는 자기 자리를 향해 소망과 결단으로 돌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을 이미 주셨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밤 속에서도 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을 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두를 향해 응원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배의 마지막을 ‘나’로 삼고 있는지 ‘타인’을 두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찾아 감사합시다.
3.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4. 우리 삶의 지향점을 예배에 맞추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5.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을 향해 걸어가는 구역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1~21

1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와 그의 종들이 찬송하라 2 여호와와 그의 집 우리 여호와와 그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3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4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5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 보다 위대하시도다 6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7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8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9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10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11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12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13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1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15 결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19 이



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135편은 찬송시입니다. 시편을 문학적이며 내용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할 때 시편에는 여러 편의 찬송시가 있는데 시편135  
편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 할렐루야(1~2절)

(1~2)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여럿 있습니다. ‘할렐루  
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라틴어로는 ‘알렐  
루야’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곧 주의 백성들  
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은 주의 성도됨의 가지적인 중요한 특징이며,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곧 사람이 음악과 노래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호흡하듯 찬송을 하고, 옷처럼 찬송을 입고 삽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 구원의 이름 예수(3~14절)

(3~14)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아굽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찬송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애굽을 치시고, 가나안의 왕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노래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며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75억 명이라고 볼 때 동명이인은 하나로 치더라도 별의 개수만큼이나 많은 것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저마다 신중하게 어떤 이유를 따라 지어졌고,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마다의 이름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고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이 역사 속에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 이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보다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

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고 위대하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현실과는 전혀 다른 영원하고 완전한 완성의 자리와 상태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위험하고 심각한 것은 영원에 대한 개념, 영생하는 천국에 대한 인식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 인양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 너머에 천국에 대한 참된 현실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함정과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꿈에서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수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안락함과 안전함 맞은편에 그늘져 보이지 않는 외롭고 마음 아픈 이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고 인정을 받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선하고 좋은 기억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그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은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로 날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은금 우상(15~18절)

15절 이하 18절은 열국의 우상들에 대한 실상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들을 또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에 눈멀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 우상들에 구원과 행복이 있다고 믿고, 자신의 영원을 보장해준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은금, 돈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그러기에 옛날에도 우상을 은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돈 다음이 하나님이고, 신앙입니다. 돈으로 세상에서 재미있고 좋은 것 다 누리고 끝으로 천국도 가려고 합니다. 착각이며 오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상에 밀려 찬송

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런 현실과 실상을 아시고 다시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 위해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긍정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찬송의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힘이 되고,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되는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로 인해 사는 자들로, 일평생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위대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용기로 살아 주 안에서 선하고 좋고 그리운 기억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할렐루야’의 뜻은 무엇입니까?
2.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아름답습니까?
3. ‘예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4.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봅시다.
5. 누군가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고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1~26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주들 중  
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 큰 빛들을 지  
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 해로 낮을 주관하  
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 달과 별들로 밤  
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 애굽  
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 이스라  
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  
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로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  
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 그의 백성을 인  
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하나님을 향한 환희의 찬양(1~3절)

시편에는 ‘할렐 시편(Hallel Psalms)’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113~118편까지를 제1할렐시편이라 하고, 146~150편까지를 제3할렐시편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6편을 제2할렐시편 또는 대할렐시편이라 합니다. 이 시편들이 그와 같이 불리는 것은 그 시편들 속에는 ‘할렐\_너희는 찬양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큰 이유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인, 무교절(유월절), 칠칠절(신약의 오순절), 초막절(장막절, 추수감사절)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이 시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굉장히 간결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에도 후렴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 글 중에 “살 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로 시작되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에는 매 절마다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라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고, 현악기의 소리를 흉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자가 각 절의 상반절로 선창(先唱)하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시입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세상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긴 역사를 26절로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편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 78, 105, 106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역사 시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3)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의 각각의 시작이 히브리어성경에는 모두 ‘감사하라’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1절에서는 ‘여호와께’,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주 등 다양하게 표현합니

다. 감사를 드릴 때, “~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도 감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을 해 주시지 않으심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는 참 귀합니다.

CCM(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3절 가사는 중에 “길 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로 시작됩니다. 장미꽃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기 쉽지만, 장미꽃 가시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하는 사람의 인격과 믿음은 참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러나 장미꽃과 장미꽃 가시를 감사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감사는 장미를 만드신 분, 장미를 주심과 주시지 않음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더 깊고, 더 넓은 감사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시편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자체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감사합니다. 특히 ‘무엇 중에 무엇’은 ‘최상급’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서 ‘뻐 중의 뻐’, ‘살 중의 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최고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이 뛰어나다고, 최고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의 의미이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는 의미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의 주인이며, 자신의 삶을 인도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만, 주님(아도나이)이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의 의미입니다.

###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4~9절)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4~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구체적 감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전부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라고 고백합니다.

(5~6)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6절은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층천은 사람이 숨을 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이층천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인데, 당시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큰 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층천이 사도 바울이 올라갔었다고 고백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늘을 말할 때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하늘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일층천과 이층천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셨습니다. 성경의 물(바다)은 두려움의 뜻하곤 하는데, 그 위에 ‘땅’을 지으셨다는 것은 물의 두려움이 사람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은 감사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시고도 무한의 양만큼 남습니다.

(7~9)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9절은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히 8절과 9절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와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대 중동사람들에게 ‘해(태양)’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나라에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왕들은 대부분 태양신의 아들로 여김을 받아서 숭배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달도 숭배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달은 밤에 일을 할 수 있게도 해주며,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달과 별이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상징이

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즉 그러한 천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고 정문일침(頂門一鍼)을 박는 것입니다.

### 구원주 하나님 찬양(10~26절)

10~25절에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정착하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0~16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0~11)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라고 말씀하지만, 그전에 9가지의 재앙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신 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스스로 벗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꺼내 주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주시지 않으셨던들,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애굽의 노예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일(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2~15)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  
습니다. 홍해를 건너 일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최고, 최대, 최상의 영적  
인 사건입니다.

(16~20)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광야를 지났던 40년 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  
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만나, 반석의 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츠지 않게 등)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불평불만  
속에 살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1~25)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조상들의 패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문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를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모든 구절에 감사하라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간



이 영원인 사랑을 베푸시고, 그 기간 동안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정착까지만 돌아보아도, 그들은 문자 그대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불가사의한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가꾸어 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가시며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백성으로 받아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허물이 많음에도 우리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성전으로 가꾸어 가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 최상의 감사 예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하루의 삶을 성전으로 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우리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의 삶에서 당신의 허물과 실수,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앞으로 당신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용기를 내는 믿음,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편 137:1~9

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 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7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험어 버리라 험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험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8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다(1~4절)

오늘 본문은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겪은 고난과 고통, 서글픔을 기록한 시입니다. 따로 표제어가 있지 않아서,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

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과 ‘수금’ ‘시온’, ‘노래하다’ 등을 통해 볼 때, 성전에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이 나라가 망해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갔을 때에 조국과 성전이 있는 시온(예루살렘)을 그리며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바빌로니아 포로기간이 끝나기 전과 포로기간이 끝나고 돌아온 후, 양쪽으로 의견이 나뉘지만, ‘거기에 앉아서’라는 표현을 볼 때, 시인이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기록하였었다면 ‘여기에 앉아서’라고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울~다윗~솔로몬왕으로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끝이 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왕 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윗쪽은 ‘(북)이스라엘’로, 아랫쪽은 ‘(남)유다’로 불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들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고, 그 후로 남유다는 130여년 더 지속되었지만, B.C.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막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바빌로니아 제국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서 쇠사슬로 묶어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고, 여러 귀족들을 죽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습니다. 물론 성전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때에 함께 끌려간 시인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발강(에스겔이 있었던 곳), 을래강(다니엘이 있었던 곳) 등의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어디 한 곳에서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에 있는 강가에서마다 강제노역을 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특히 ‘울었도다’의 ‘울다’는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 챈 때,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빌어 줄 복이 이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라고 대성통곡하며 울었을 때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좌절감은 깊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시온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정작 자신들이 있는 곳은 이방땅, 이방신을 섬기는 바빌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성경에는 ‘시온을 기억하며’ 앞에 ‘참으로(감, gam)’를 뜻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그리는 마음이 사무쳐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 (2)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슬퍼하는 모습과 고국을 그리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버드나무는

잎과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처량하다고 하여 슬픔의 감정을 비유할 때에 사용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 바빌로니아의 강변에만 서식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에 서도 초막절에 흔들며 즐거워하는 등, 절기에 사용할 정도로 흔한 나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여러 강변에서 버드나무들을 볼 때마다 고향에서 보던 나무를 떠올렸을 것이고, 절기를 지킬 때에 그 가지를 꺾어서 즐거워했던 때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조국을 그리는 마음은 더욱 사무쳤을 것입니다.

또한 ‘수금(비파, 하프)’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악기였습니다. 그것을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악기를 타지(연주하지) 않았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걸다’는 사람을 목매달아 사형을 집행할 때에 주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마치 수금이 처형당한 죄수처럼 걸려 있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수금은 시인의 자화상과 같고,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에 사용했던 수금을 장례를 치르듯 매어 달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들의 기쁨의 찬양은 슬픔의 장송곡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버드나무’와 ‘수금’이 모두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여러 버드나무에 여러 개의 수금이 매달려 있는 황량한 모습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변만이 아니라, 티그리스 강변에도, 그발 강변에도, 을래

강변에도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가만 두어도 유다 백성들은 고통스럽고, 서글픈데,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2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먼 이국땅까지 끌고 와 노예로 삼음으로,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약탈당하여 황폐화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기쁨’, 즉 자신들을 즐겁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비참함과 처절함의 극치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유명 가수에게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뜬금없이 “노래 한 곡 해 봐!”라고 말하면 몹시도 모멸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설교 한 번해 보시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저에게 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는 3절의 ‘시온의 노래’와 같은 말입니다. 4절의 말씨는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의 의미입니다. 즉 “이곳 이방 땅에서는, 그저 유희 대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요구로는 결코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뒤집으면, “하나님,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의 의미입니다. 즉 지난날에 그럴 수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대한 참회와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다(5~6절)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다시 기억하기로 다짐합니다.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라도

표준새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또 공동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시인은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있는 수금을 타는 재능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

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변하게 된다면, 자기 손이 수금을 타는 재능을 잃어버려도 좋고, 잊지 않을지라도 손이 말라버려서 탈 수 없게 되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다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6)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시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기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처했던 상황과 같이 포로됨과 같은 극단의 상황이 아니어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높은 연세가 되어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내가 왜 좀 더 일찍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 때 자녀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애원할 때에, 직장동료가 한 번만 교회에 가보자고 했을 때에, 과거에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사는 이유도, 의미도 없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인데... 이제라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과거에는 왜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았는지, 왜 그

렇게 자식들을 혼내기만 했었는지, 옛날에는 왜 그런 물건을 갖기 위해서 광분했는지, 가진 것이 좀 있을 때에 나누고, 섬기고 하지 않았는지, 그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을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가 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 행한 대로 받게 하소서(7~9절)

시인은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를 혼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예루살렘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돔에 대한 것입니다.

(7)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혈어 버리라 혈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혈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에돔이 자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괴롭혔고,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통쾌하다며 입을 크게 벌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A.D. 70년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로니

아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8~9) 멸망한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보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보다

시인은 바빌로니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행한 그대로 당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바빌로니아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이 그 후로 500년, 1000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년, 200년 동안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47년 만인,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깝게 여겨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 바빌로니아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며 수십 년 동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고, 시온을 그리워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은혜와 신묘막측한 섭리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농경문화를 배우다는 명목 하에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머무르셔야 할 그들의 삶과 믿음의 공간에는 구석구석까지 오염이 되었

기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성전을 허무시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셨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정한 기간 후에 그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 세속적 가치관 속으로 끌려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삶을 정결한 성전으로 가꾸어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심겨진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총 속에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여러 강변에서 많은 눈물을 쏟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고서야, 과거 시온에 있을 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었는지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모욕과 신앙적인 수모를 당하고서야, 과거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연주를 올려드린 것이 얼마나 복이였는지는 가슴을 치며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때에 방해받지 않고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다하여 믿음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총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으나 섬길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이 간절했으나 찬양할 수 없었던 때나 장소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 혹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였다가 낭패를 겪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당신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3.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습관이나 기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시는 바빌로니아의 강가와 같은 곳에서 우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시편 138:1~8

### [다윗의 시]

1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3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4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5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6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7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 찬양하리라(1~3절)

오늘 본문 138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138~145편까지는 모두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입니다.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



면서, 146~150까지의 제3할렐시 앞에 다윗의 시들을 8편 모아 놓았습니다. 이 시편들에는 찬양시, 비탄시, 신정시, 감사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생의 순간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셨으며, 가야할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포괄적인 언어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는 ‘마음을 다하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전부로’의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지난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3~40년 이상을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전쟁을 크게 치렀고, 피를 아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도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들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삶을 돌아보아도, “이제는 죽는구나.”라고 고백되었던 때가 몇 번 기억납니다. 또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제 인생의 고비고비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攝理)하심은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부족하기만 하고, 아무리 찬송을 드려도 남음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예배하다(사하)’는 새신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땅에 엎드리다’, ‘절하다’입니다. 절하는 대상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그의 말년에 기록했다면, 적어도 60세(다윗은 70세까지 생존)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전(성막)을 향

하여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리다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 ‘계약기간이 영원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성실하심’은 ‘무조건 믿어도 되는 진리, 나를 맡겨도 되는 견고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인생 길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애 3:22~24)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자기 임금인 시드기야 왕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눈이 뽑히는 것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들도 죽임을 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의 처참함도 필설로 형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허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은총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더 이상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이 진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렸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에 대하여 2번 참을 수 있었고,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을 응징하지 않을 수 있었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가야 했던 처참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그를 지켜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강하게 하여 주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우리가 총명하면 얼마나 총명하겠으며,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봐야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한 시인은 자신의 시 <자화상>에서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八割)이 바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

에 적용하면, “나를 나 되게 한 것의 팔할이 주님의 응답과 내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심이다”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것 중, ‘팔할’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것의 팔할, 아니 전부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아니었습니까?

#### 여호와를 찬양하라(4~6절)

다윗의 찬양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4~5)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기도를 들어주심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심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전하여 지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몽골 초원에 사는 사람들과 마사이족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먼 곳을 쳐다보고서 “친구 000가 온다.”고 말하면, 그 말한 친구가 실제로 3~40분 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갖고 있어도 날이 어두우면 보지 못합니다. 또 앞에 가림판이 있으면, 비록 가까이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가림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눈앞에 사람들이 서 있어도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서로에게 ‘갑질’과 ‘을질’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의 3절 가사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과 더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하게 여기고, 무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 최상의 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귀하

게 여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질수록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리 높이 있다고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보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 구원하시리이다(7~8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떠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를 표준새번역성경에서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라고 번역합니다.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윗의 다른 시로 고백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시 23:4, 과거형으로 표시).”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의 뿔’ 등으로 고백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해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려갑니다.

(8)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표준새번역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인 다윗을 세우신 목적을 충분히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샘플로 보여주었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며, 한 평생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간 시인 다윗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은, 그가 한 평생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았고,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었고, 자신의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믿음이 새로워졌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윗과 3000년의 간격이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고, 믿음의 용기로 죄성에 찌든 일상을 익숙함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탈피하게 하여 하나님의 통로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어주셨으며,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게 된다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에 부유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던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에 우리도 이런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의 첫날인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이 최근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2.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3. 당신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아시고'나 오른손으로 건져주셨을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주의 눈이 보셨으며

시편 139:1~12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5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 내가 흑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나이다

###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1~6절)

오늘 본문 139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성가대 지휘자

의 지휘나 찬양 인도자의 선창에 따라서 회중들이 따라서 부른 예배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全知)\_모든 것을 아심과 편재(遍在)\_어디에나 계심, 창조, 섭리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교리적인 시편’이라 부르기도 하고, ‘조직신학적인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이지만, 표현은 아주 신앙적입니다. 즉 아주 깊은 내용을 굉장히 쉽고, 감동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시인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적인 신앙언어로 표현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던 자신의 삶의 단면들을 고백하며,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을 노래합니다. 1~6절은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 즉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자신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살펴보다’는 단어는 탄광에서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와 적진을 탐지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광부가 광석을 캐낼 때에 아무 곳이나 파지 않습니다. 좀 더 양질의 광석이 있는 곳과 더 많은 광석이 있는 곳을 분별해 가며 채광할 것입니다. 또한 적진으로 정탐을 간 군인이 장터에 나와 있

는 사람들을 둘러보듯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군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의 지형이 어떠한 지, 적군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형태로 보초를 서는 지 등등을 최대한 면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피셨다고 고백합니다.

(2) 주께서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 되는 단어는 ‘주께서’입니다. 나를 상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신적인 존재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앓고 일어섬’은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앓고’는 ‘평안할 때’를 의미하고, ‘일어섬’은 ‘괴로울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과 같아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질서 정연하게 잘 진행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보일 때에도 우리를 아실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아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기치 않게 다가와서, “하나님, 숨 돌릴 틈 좀 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어 할 때에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스라이 멀리 계신 것

과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지 않으시고, 환하게 그리고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의도’, ‘목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세계까지 상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전지적작가시점(全知的作家視點)’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에 관한한,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설가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셈입니다. 그 소설가가 실제의 삶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설가가 자기 소설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같은 물론 속까지 전부 알고 있듯,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3)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은 2절의 ‘앉고 일어섬’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모든 길’이 ‘공적인 모든 활동, 일터에서 삶’이라고 한다면, ‘눕는 것’은 ‘사적인 생활, 휴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다’의 문자적인 뜻은 ‘까부르다’, ‘키질하다’입니다. 마치 농부가 키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까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인 활동은 물론 사적인 활동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하는 모습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쉬는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행동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도 상대가 그 말의 진의를 알지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말 안하면 몰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말을 반복해서 할지라도 상대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은 인격이 깊어지면 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참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아주 억울한 경우에도 말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사정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겪는 일을 보고서 동료나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해 줍니다. 그 때에 우리가 속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몰라!”입니다. 그런 때에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내 배우자도 몰라주고, 내 부모도 몰라주고, 내 자녀도 몰라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CCM(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시작되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  
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은 사람의 말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  
리의 작은 신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차마 입으로 내 뱉지  
못하는 말도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중에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  
리의 말이나 생각 중에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시인  
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 (5)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을 모두 알고 계심을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연극무대에서 배우가 1인극을  
하면 스포트라이트는 그 배우를 따라다닙니다. 또한 낮에 길을  
다니면 태양빛이 우리를 따라 다닙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표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  
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시 23:4)” 다윗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를 지나가는데, 그 때는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해 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

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의 앞뒤를 둘러싸고 지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全知)하심\_모든 것을 아심을 다윗은 자신에게 담아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식’은 1~4절에 반복되어 나온 ‘아시고’의 ‘명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아시고’를 우리는 ‘모르고’가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시고’를 우리가 다 안다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7~12절)

7~12절은 하나님의 편재하심\_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수직적으로 아무리 높은 곳과 아무리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8)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의 영’은 ‘성령 하나님’만을 의미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앞에서’의 문자적인 의미는  
‘당신의 얼굴에서 벗어나’입니다. 즉 다윗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하늘\_하늘꼭대기)와 최저의  
깊이(스올\_지옥)에까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가야할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가 배 밑층까지 내려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셨고, 심지어 바다 깊은 곳에 던져  
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  
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수평적으  
로 아무리 멀리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10)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는 아침에 동이 틀 때에 태양광선이 뻗어나가  
바다에 닿는 모습을 염두에 둔 시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지중해이었고, 그 바다의 끝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지극히 위험한 장소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바다만 해도 두려운데, 그 끝에는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혹 그 바다 끝에 살게 된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시편의 절정입니다.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제외된 곳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12)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몽골 초원에 사는 사람이나 탄자니아와 케냐 국경의 고원에 사는 마사이족 사람들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흑암이 가득하면 아무 것도 보지 못합니다. 또 매나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와 타조와 같은 조류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흑암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이 동일하고, 흑암과 어두움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을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었음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에 편한 성전의 삶을 살았으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불경건한 일상의 익숙함을 던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죄성에 찌든 일상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전지하신 하나님과 편재하신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총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광부가 채광하기 위해서 광산을 자세히 살피듯이, 또 정탐을 나간 군인이 적군의 동태를 세밀하게 살피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피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가 길을 가는 것과 눕는 것도 아시며,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심에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곳을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혹 우리가 하나님의 눈 밖에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달려든 허영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아 하늘 꼭대기를 가거나 바다 속예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으며, 새벽날개를 타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느 쪽이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심지어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숨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빛이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오염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꾸어 가게 하시며, 매일 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당신의 앓고 일어섬과 당신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2. 혹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3. 혹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는 곳이 없음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13~24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 하나님이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19 하나님이며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꾀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20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2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22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23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고백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신앙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즐겨보는 지, 밥은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늘 하나님을 알고자 묵상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더하여가며 더 깊은 신뢰와 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자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인간 창조의 기이함(13~16)

오늘 본문 13~16절은 인간 창조의 기이함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3~14절입니다.

(13~14)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장이라는 것은 ‘마음, 신장’을 의미하는 ‘킬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드셨다는 단어는 ‘짜카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직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몸을 베틀삼아 자신의 몸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직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은 설계와 재료와 방법을 다 알고 진행을 하는 반면에 인간창조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외모를 가진 아이인지 모른 채 아이를 낳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베틀삼아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신비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16절을 보시면

(15~16)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은밀한 데’와 ‘땅의 깊은 곳’이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며 초음파도 없던 당시 육안으로 볼 수 없던 어머니의 뱃속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의 장소가 아님을 이야기 합

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는 고백은 자신이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삶 전체를 꿰뚫고 바라보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9편 앞부분에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고백하며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심을 고백했다면 여기서는 모든 시간을 꿰뚫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자신의 목전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하며 자신의 출생과 죽음이 모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놓여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18절을 보시겠습니다.

####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의 고백(17~24)

(17~18) 하나님이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고귀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심의 다양한 길이 너무 많아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수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생각을 세어 보려 해도 마치 모래알을 세는 것보다 더 많아서 불가능하다고 고백하

며 또한 우리가 잠이 안 올 때에 양의 숫자를 세다가 잠이 들듯이 하나님의 고귀한 생각들을 세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었을 때에도 여전히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바둑 초보와 바둑 기사가 대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보는 당장 눈앞에 있는 상대의 바둑알을 빼앗거나 작은 집 짓기에 바쁘지만 바둑 기사는 큰 그림을 보고 포석을 놓습니다. 초보는 왜 그 자리에 놓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악수같이 보이는 시기가 있더라도 실망할 것이 없음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묘수로 둔갑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총리가 될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길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19~20) 하나님이며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속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엄밀히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악인’은

‘라삭’라는 단어로 불경건하고 교만한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고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악인들을 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21~22)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골리앗이 여호와와 군대를 향해 조롱할 때에 이스라엘 왕과 군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향하여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조롱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조롱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을 욕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그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곧 자신의 원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원수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게 함께 원수가 되는 것은 안전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기도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옳은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역사 속 많은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대적으로 몰아세우고 공격했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반대의 경우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23~24절입니다.

(23~24) 하나님이며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의 ‘용기’를 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살피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 강도의 소굴을 쫓아내는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단속반을 보면 두려움에 떨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는 담대하게 측정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 개인의 욕망을 위해 원수를 무찔러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 간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 얼마나 철저하였습니까? 감정적으로 한 칼에 없애고 싶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참았던 그였습니다. 결코 자신의 감정과 원한에 따른 복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살피달라고 고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으로 139편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곧 ‘동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욕망의 길, 강도의 소굴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만든 욕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사랑과 묵상에서 나온 시편 139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욱 폭넓게 해줍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과 말과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짧은 생각을 넘어 수만 가지 고귀한 계획들로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곧게 하시며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깊은 앎은 다윗을 다윗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

기가 되었고, 사울왕으로부터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두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안에 강도의 소굴을 쫓아내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겪는 여러 불편함을 용기 있게 감내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은 욕망의 파도가 불어와 중심을 지키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는 바르게 걸어간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우리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믿음으로 걸어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오는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심겨 있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현재의 고난에 실망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찾아오는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강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 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읽어보면서 나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묵상하여 봅시다.
2.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길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있었음을 깨닫게 된 일이 있다면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3. 오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4.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0:1~13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2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3 뱀 같  
 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  
 라) 4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  
 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  
 나이다 5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  
 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6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  
 다 7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8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9 나  
 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  
 을 덮게 하소서 10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12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13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

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표제어를 통해 시인이 다윗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에 있어, 다윗이 구체적인 어떠한 언급이나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왜 이 탄원시를 써야 했었는지, 그리고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악인의 계획적인 악담과 궁지로 모는 함정 앞에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1~8)

시인 다윗은 “건지시며”, “보전하소서”라는 말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자신의 처지를 의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탁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특별한 잘못을 했거나 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수들이 악한 모략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악한 모략, 즉 공격에 대해 본문은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2~3)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으며 밤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행동을 피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은 동기부터가 악함에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을 생각나게 합니다. 전쟁의 장면 중에서 적군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싸우기 위해 매일 모여 전쟁을 준비하며 전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영화 <안시성>을 보면, 수적으로 열세인 고구려의 안시성을 탈환하기 위해 당황제 이세민은 계속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군대를 나누어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군사들을 보내어 싸웁니다. 당나라의 군사들은 싸우고 쉬기를 돌아가며 전쟁을 치르지만, 안시성의 군사들은 쉴 틈조차 없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안시성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이 그토록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맹렬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뱀의 혀, 즉 원수는 악담을 통해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의 악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날카롭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원수의 악담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완곡하고 부드러운 언어가 아니라, 날카롭고 예리한 말로 다윗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말이 치명적인 독까지 품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마음에서 기인되어 내뿜는 말

은 날카로워 찢린 상처가 아픈 것 뿐 아니라, 주위에 독이 남아 다윗의 마음을 더욱 더 저리게 하는 것입니다. 동기에 있어 악하고, 계획에 있어 치밀하며, 공격성에 있어 치명적인 원수의 공격은 그 뒷자리마저도 다윗에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5)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올무와 줄, 그물과 같은 함정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렬한 공격과 함께 위험한 함정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함정들이 있기에 다윗은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4)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경험에 기인한 믿음이었습니다.

(6~7)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번 탄원시를 기록할 때보다 더 앞서, 다윗은 이미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날에 다윗을 위한 구원의 투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원수들로 인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맹렬한 전쟁의 현장에서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는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음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확신에 찬 고백을 이끌어준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기인해,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실 것에 대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도움을 달라는 기도와 함께, 8절에서는 원수의 행동을 원천적으로 막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8)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인이 준비하고 있는 악한 계획을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의 단계, 즉 계획부터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의 생각까지 원천봉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9~13)

이제 다윗은 원수들을 심판해주실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감사로 이어갑니다.

(9~11)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다윗이 다소 무자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의 간구는 원수의 악행이 원수에게로 향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마치 모르드개를 높이 50 규빗이 되는 나무에 매달고자 했던 하만의 악한 계략이 도리어 하만과 열 아들에게 돌아갔던 사건과 같은 간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저주하는 데에는 다윗에게도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윗의 원수들이 함정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재앙으로 인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본인의 송사가 거짓이라면, 그 심판이 본인에게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거짓된 송사를 일삼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은 거짓된 송사가 아니라,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증으로 내세우는 고백인 것입니다. 탄식하고, 한탄하고, 저주하며, 청원하는 여느 탄원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을 저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12~13)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자를 변호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현실에 맞닿아 정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다윗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탄원시의 최종은 원수로부터의 승리나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원수의 악행과 같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 행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살면서 우리 또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믿음의 실천과 다짐으

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의 치밀하고 치명적인 불의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드높이 서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변화되어갈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원수들의 거짓된 송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담보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구했던 신실함을 따라 우리 또한 정의를 실천하며 주 앞에 살아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인생 속에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말로 인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2.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의 투구가 되주셨던 경험을 묵상해 봅시다.
3. 나에게 고난을 주는 원수를 꺾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묵상해 봅시다.
4. 시인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나만의 믿음의 고백을 묵상해 봅시다.

## 분향함과 저녁제사와 같이 되게

시편 141:1~10

###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  
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3 여호와  
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5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  
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6 그들의 재판  
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7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  
졌도다 8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  
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 두지 마옵소서 9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  
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10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함(1~6절)

오늘 본문 141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을 마무

리하면서, 다윗의 시를 138~145편까지 8편을 모아 놓았는데, 그 중에서 138~139편은 ‘찬양시’이고, 140~142편은 ‘비탄시’입니다.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시편을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원수의 압박과 같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견져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몹시도 다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호소하니 제발 와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제발 와 주시라고 해도 와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서 기도들을 들려도 듣지 않으시거나, 들으시고서도 모른 척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상황은 2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이고, 또 한 번은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왕궁을 떠나 도망을 가야 했던 상황입니다. 이 두 상황 중에서, 이런 호소를 드릴 수 있는 때는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일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할 때가 훨씬 더 처참하지만, 그 때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할지라도, 우리가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리는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을까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때는 아마 “하나님, 아시지요? 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며, 울음을 삼키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혼자서 도망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함께 했던 600명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울왕 쪽 사람들과 내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 늘 자기 곁에 있어서 자기 사람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울왕 쪽에서 심은 첩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55편에서도 다윗은 원수들과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악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 동료이고,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다윗의 다윗 됴은 이런 처절함과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유대문학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와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손 드는 것’이 같은 의미이고, ‘분향’과 ‘저녁 제사’가 같은 의미입니다.

‘분향’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에 나는 연기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 가득한 것처럼, 자신의 기도가 이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단 위에서 태운 소제를 의미합니다. 이 소제는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드렸는데,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그와 같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 (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가장 먼저 자신의 입(말)을 지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입을 잘 통제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자기 입(말)을 통제하지 못하니, 자기 입에 문지기를 세워서 자기 말을 제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입(말)이며, 모든 일들에 가장 큰 문젯거리가 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을 받았습니니다. 그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이사야 6:5)”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이 크고 작은 문제와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엡 4:25)”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야고보 3:2)”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4)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말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신의 행동(삶)이 어긋난 길에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말을 바르게 해도 그 삶이 바르지 않으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깊은 친분을 나누며,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평안해진 뒤에, 자기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아들과 같이 대우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잡혀가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할 때에 10일 동안 시험 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먹고 살지라도 그 나라의 신앙과 가치관에 동참하지 아니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윗도 악한 사람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의 양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7)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4절이 악한 사람들과의 절연(絶緣)의 기도라면, 5~7절은  
의로운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혹 의로운 사람들  
이 자신을 때리고, 책망을 할지라도 달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  
다. 그리고 결국 농부가 밭을 갈 때에 흙덩이를 부서뜨리는 것  
처럼 악인들도 종말에 그와 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의 기  
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 악인에게서 건짐 받기를 기도함(8~10절)

(8)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반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시인 다윗의 다급한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3  
중으로 표현합니다. 앞부분을 직역하면 “당신, 여호와, 주님!”입  
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_분향하는 것과 저녁 제사 드리는 것  
같이 되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악인과는 함께 하지 않

고, 의인과 교제를 할 것이며 등과 같이 될 것을 아뢰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빈궁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홀로 있는 것처럼 몹시도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과 같고, 마치 허허벌판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이자, 영적인 자산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9~10)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한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제 피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올무’와 ‘함정’의 공통적인 특징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무는 숲 속에 짐승이 잘 다니는 길이나, 먹이가 많은 곳에 설치합니다. 짐승이 그 올무에 머리가 걸리거나, 다리가 걸리면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또 함정은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다 나뭇가지와 나뭇잎으

로 덮어 놓습니다. 역시 짐승이 거기에 빠지면 나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한 번 걸리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계락을 짜 놓고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시거나, 혹 걸리게 되었다라도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와 함정이 많습니다.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져도 그 순간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고서도 충분히 자신은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건져주실 분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닌 내용은 사무엘상 18~26장 사이에 나옵니다. 사무엘상만 보면 도망을 다니는 다윗은 의연하고, 오히려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초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중에서 탄원하는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가 아니면, 사울왕에게 피난을 다닐 때에 지은 것입니다. 그 모습은 참 처절합니다. 그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았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킵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올무도 만들어 놓고, 함정도 파 놓았지만, 다윗은 자신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

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 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 계획이나 자신의 뜻하는 대로 왕 으로 세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 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 지만,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전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고백이 우 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 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분향과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예배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아무리 큰 즐거움과 큰 이익을 준다면이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 쓰고, 내 마음에 아픔이 될지라도 의로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왕의 뒤를 이을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을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을 받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분향함과 저녁 제사와 같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기도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드릴 기도를 정리해 보십시오.
2. 우리 앞에는 언제나 악인의 진수성찬과 의인의 책망이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악인의 진수성찬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의인의 책망은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하십니까?
3. 다윗은 악인들의 울무와 합정에 대하여 동일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응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가고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없고 없고 없나이다

시편 142:1~7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1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  
다 2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  
하는도다 3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4 오른쪽을 살  
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5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  
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6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  
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갓아 주시리니 의인들  
이 나를 두르리이다

### 하나님을 향한 탄원(1~2절)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시를 138~145편까지 8편을 모아  
놓았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140~142편까지 이어지는 비탄시 중에서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글자 앞에 작은 숫자가 쓰여 있고, 아래에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동굴에 있을 때’, 즉 ‘인생에서 환난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임을 교훈하여 주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굴에 (피하여) 있을 때’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2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인 사울왕에게서 오해와 모함을 받아 도망을 다닐 때에 숨었던 굴 2개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돔람 지역에 있는 굴(사무엘상 22장)이고 또 하나는 엔게디 광야에 있던 굴(사무엘상 2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굴 중에서는 아돔람 지역에 있는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뽑은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최정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사울왕의 다윗을 잡고 말겠다는 의지와 다윗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고야 말겠다는 증오심의 발로였습니다.

시편 57편도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지은 시이지만, 거기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깎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리도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

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이고(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겹옷자락만 가만히 베고서 나옴),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지역에 있는 동굴에 있을 때의 처절한 상황 이르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아둘람에 있는 굴에 몸을 피하여 있을 때는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 그의 형들과 온 집안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도 사울왕의 위협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40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은 모두 짓눌린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유대광야를 다니다가 한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문과 같은 시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1)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와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가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는 ‘큰 소리로 부르다’는 의미이고, ‘간구하다’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의 의미는 큰소리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울부짖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에 울지 못하면 오히려 마음에 그늘이 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때에 부르짖지 못하면, 마음에 깊  
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다윗은 동일하게 또 호소합니다.

(2)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말씀도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와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가 같은 의미인데, 반복해서 말함으로  
더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로하다’가 ‘뱉다’, ‘쏟  
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한글판성경에는  
‘토하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실감이 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원통함’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환’은 ‘고난’,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인이 ‘해산할  
때의 고통’, 특히 ‘첫 출산 때의 고통’을 표현할 때도 쓰는 말입  
니다. 여인이 출산을 할 때에 있는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출산  
을 하려는 딸이 고통스럽다며 소리를 지르면, 친정어머니가 손  
가락을 2개 보여주고는 “몇 개니?”라고 물을 때, “2개”라고 답  
하면, “아직 멀었다”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3~5절)

다윗이 그토록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정도로 호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3)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대

다윗은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몹시도 놀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상하다’는 ‘기력이 없다’와 ‘실신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는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험덱일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길’은 ‘걷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여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동굴 안에 햇불 같은 것을 켜 놓았겠지만, 그런 것마저 없으면 칠흑같이 어두워 앞뒤와 좌우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밖에는 다윗을 잡기 위한 사울왕의 군인들이 득실거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다윗 주변에 가족들이 있지만 그들도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온 사람들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은 매 한가지였습니다.

또한 함께 했던 400여명의 사람들 있었지만, 그들도 빛에

시달린 사람들, 원통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할 길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즉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야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다윗이 가는 ‘길’에 올무를 놓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길은 ‘자주 다니는 길’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거는 등 공개적으로 함정을 파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공개적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밀고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손’ 등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시편 16:8에서는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제 오른쪽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 오른쪽을 살펴보시옵소서”라고 참 애절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망갈 길)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라고 부정어를 3번을 사용하며, 고립무원(孤立無援)~홀로 있어서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5)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피난처’와 ‘나의 분깃’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분깃’은 ‘할당’,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곳, 피난처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며, 혹 모든 것을 잃어서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 유일한 분깃(몫)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 간구와 서원(6~7절)

다윗은 하나님만이 피난처와 기업(몹)이 된다고 고백하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6)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자신이 심히 비천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매우 낮은 곳으로 가져감을 당하였습니다.”입니다. 즉, 자신은 심리적으로 아주 많이 눌리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몹시 궁핍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격을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7)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이 자신을 옥에서 꺼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사실 그는 옥에 갇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전국에서 뽑힌 군인 3000명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틀림없이 내 편이라고 굳게 믿고서 함께 작전도 짜고 싸움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첩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자신이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감옥 속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별칭이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 ‘버림받은 사람의 호소’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왕의 뒤를 이을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 때 다윗의 나이가 약 15살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기름부음을 받고서 약 22년이 지난 후인, 약 37살 때입니다. 다윗은 참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다윗이 그 긴 세월동안 오늘 본문과 같은 처절한 상황을 겪었던 것은, 자신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면 사울도 일찍 죽일 수 있었을 것이고,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도 일찍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다윗은 ‘임금 다윗’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표(師表)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으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쉽지 않아도, 오늘 하루 모자이크 종이를 한 장 붙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려 가시는 작품이 될 것이며, 우리는 날이 갈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숙해 갈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가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기까지 하나님께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아꼈을 하나님께서 신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안개가 가득한 것 같고, 때로는 짙은 어둠이 가득하여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구분하기 힘들지라도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아는 척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피할 장소도 없고, 홀로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시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은총을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만큼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낼 정도로 기도를 드렸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2. 다윗의 고백처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아 주는 사람도 없는 것과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힘이 되어주셨습니까?
3. 당신의 삶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 주신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피난처가 되시며,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시편 143:1~12

###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엮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4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5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7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8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9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0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 죄의 회개(1~6절)

오늘 본문은 시편 138~145편까지에 있는 다윗의 마지막 시편 8편 가운데 6번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참회시’가 모두 7편 (6, 32, 38, 51, 102, 130, 143편)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편입니다. 또한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성경(LXX)’ 과 라틴어로 번역한 ‘별게이트성경(Vulgate)’ 에는 표제어가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피난 중에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이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7)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지금 자기 앞에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불의가 횡횡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이 피곤하다’는 것은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하면 뭐해?”라는 생각 등으로 인해서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것도 자기 앞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과 같아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음의 공포가 있음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귀를 기울이시고”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상대의 입 쪽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귀 뒤에 손을 대고서 귀를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아주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몹시도 고통당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도를 줄여서 표현하면, “하나님, 제발!”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만약 이 시편이 ‘70인역성경’과 ‘별게이트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아들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해 쫓겨 다닐 때에 지은 시이고, 우리가 다윗의 상황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나가서 말하는 것도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재 좀 처리해 주십시오.”와 같은 내

용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통감하고 있었고, 아들에게 모반을 당한 것도 바로 밋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과정이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수용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다윗 됴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나 전쟁에 나가 연전연승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와 같은 모습, 자신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않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의 체면’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3)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얹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핍박하다’는 ‘추격하다’ ‘괴롭히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얹다’는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의 뜻입니다. 마치 주방에서 국을 끓일 때, 마늘을 넣는데 통째로 넣지 않습니다. 요즘은 갈아 놓은 마늘을 팔지만, 과거에는 마늘을 큰 식칼 뒤쪽으로 찢어서 넣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늘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쫓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 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씹힘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이 틀림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아들에게 쿠 데타를 당했다는 말은 처음 듣네?”, “저런 사람이 우리 임금이라니...기가 막혀서” 등등의 말로 인해서 다윗 자신은 이미 죽은 시체와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몸과 마음이 상황 대로 상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견딜 수 없어합니다. ‘참담하다’가 우리말로는 ‘참혹하고 암담하다’인데, 이 단어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논밭이나 적의 공격으로 무너진 성읍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 초토화된 논이나 밭과 같고, 적군의 공격으로 잿더미가 된 마을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할 기력조차 없게 여겨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5~6)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셀라)

다윗은 처절한 상황에서 옛날\_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방법으로 상황을 버티고 이겨나가며, 자신을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인생은, 인생의 위기에 과거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였다면, 지금의 위기, 지금의 고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블레셋 편에 골리앗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고양이 앞의 쥐와도 같았습니다. 그 때에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노라고 말하자, 사울 왕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다윗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삼상 17:37)”라고 말하자 사울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와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중요한 순간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신 5:15)”라며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 굽에 재앙도 내리고, 홍해까지 갈랐는데, 이 상황에서 너희를 인도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며, 과거에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순간 정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 범죄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임마누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고통가운데 있을지라도,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핍박에서의 구원의 호소(7~12절)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몹시도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9~10)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숨지 않고 하나님께로 숨었고(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11~12)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에게 끝까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도, 환난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것도, 원수들을 끊으시는 것도, 영혼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것도 전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한 순간이라도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복수혈전’을 벌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뜻이나 계획이 없는 것이고,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도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힘이며, 우리 인생에 쌓이는 영적인 자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함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참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선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

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주님의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는 은총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 참담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옛날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 참담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과거가 된 오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당할 고난도 그 때에 너끈히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총을 한 평생 잊지도 않고 잃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통로 살아가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가운데 심령이 상하고, 속에서 참담함을 느꼈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2. 다윗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에게는 기억될 만한 옛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옛날이 될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3.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통로로 살기 위하여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또한 당신의 아침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시편 144:1~15

### [다윗의 시]

1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데도 2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3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5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시라 연기를 내게 하소서 6 번개를 번쩍이시라 원수들을 흡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7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8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9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0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11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2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들과 같으며 13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15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왕(1~11절)

오늘 본문은 시편 138~145편까지에 있는 다윗의 마지막 시편 8편 가운데 7번째입니다. 그리고 표제어에는 어떤 곡조나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성경(LXX)’과 라틴어로 번역한 ‘별게이트성경(Vulgate)’에는 표제어에 ‘골리앗에 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때 다윗은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임금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전쟁을 앞에 두고서 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은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총이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 하눈의 신하들은 그에게 바르지 않은 조연을 했습니다.

“다윗왕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함락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그 조언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다윗의 조문단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문단의 수염(위엄과 명예의 상징)을 강제로 깎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절반만 깎아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중동볼기까지(양쪽 엉덩이가 보이기까지) 자름으로 극도의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다윗왕은 그 사실을 알고서 조문단에게 여리고(암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수염이 다 자란 후에 오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은 느낀 하늘왕은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20000명, 마야가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등 총 3만 3000명이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조문단을 모욕한 대가는 몫 시도 컸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아람의 연합군은 2번의 전쟁을 벌였는데 모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서 고백합니다.

(1)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전략과 전술을 잘 짰기 때문이거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월등히 컸기 때문이거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맹하여 전투력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손을 훈련시켜주셔서 전쟁에 익숙하게 해 주셨고, 손가락도 단련시켜 주셔서 전투에 익숙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싸울 싸움이 단지 복수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성전(holy war)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손은 물론 손가락에 까지 훈련시켜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이 되신다고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사랑(헤세드)’은 ‘계약기간이 무한대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접근하기 힘든 장소’이기에 안전한 곳을 강조하고, ‘산성’도 ‘남떠러지’이기 때문에 역시 쉽게 다가갈 수 없어서 안전한 곳을 강조합니다. 또한 ‘방패’도 작은 것이 아니라 전신을 가리는 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분, 방패, 피난처, 복종하게 하시는 분)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7가지의 고백이 전부 ‘나의, 내’ 등으로 표현되는 ‘1인칭’ 고백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까지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고 풍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 그에게 어떤 자격이나 가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3~4)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3절의 말씀은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편 8편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8:4)” 다윗은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작습니다. 온 우주가 축구장 크기라면 지구는 그 안에 있는 좁쌀의 크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며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람이 ‘헛 것(텅 빔)’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허상)’과 같다고 말합니다. 시편 8편에서는 최상의 인간을 그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최하의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이 하나님을 높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을 낮추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잘 묘사합니다.

(5~7)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흠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오셔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가 내게 하시고, 번개를 보내시어 적들을 흠어주시고,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적군을 ‘큰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사 43:2)”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적이 서두에 말씀드린,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라면

아람의 연합군(용병)의 숫자만 해도 3만 30000명입니다.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음은, 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인데, 다윗은 하늘을 ‘주의 하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물이 적에게 속한 공간이라면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공간이라고 고백합니다. 물이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어도 물이 단지 않는 곳은 많지만, 하늘 아래가 아닌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8)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법정에서 선서를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와 같은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서는 대부분 오른손을 들고서 합니다. 왼손잡이여도 오른손을 들고 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오른손을 들고서 진실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서도 거짓된 것만 말한다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찌라시(날장광고지) 정보와 거짓투성이 소문을 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거짓된 것으로 소문을 퍼뜨릴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9~10)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대적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당시 최고의 악기 중에 하나인 열 줄짜리 비파로 찬양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칼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순신 장군(제독)이 12척으로 133척의 일본군을 물리친 명량해전은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도 길이 남을 해전(海戰)입니다. 거기에는 이순신이라는 뛰어난 장군의 지휘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명량> 영화 포스터에도 그 말이 카피되어 있는데, “이번 일은 실로 천행(天幸)이었다.” ‘천행’, 문자 그대로 ‘하늘이 준 큰 행운’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그 승리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의 고백이 이러하다면,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 백성의 복을 비는 왕(12~15절)

12~15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백성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노래합니다.

(12)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들과 같으며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아들들은 어린 나무에서 튼튼하게 자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어릴 때 마을에 심은 나무가 그 때는 아주 작았지만, 3~40년 후에 가서 보게 되면 우람하게 자라 있을 것입니다.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딸들은 모퉁잇돌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데 모서리에 위치하는 모퉁잇돌은 건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리고 궁전을 짓는데 모퉁이돌이니 가장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장성한 나무와 궁전의 모퉁잇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3)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풍성한 결실로 받는 복입니다. 백곡이 가득하다는 것은 심는 것마다 다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이고, 양이 천배와 만배로 불어났다고 하는 것은 목축업이 왕성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당시는 지금처럼 짐승을 기를 때에 사료를 먹이지 않았습니니다. 들에 비가 때를 맞추어 내려서 짐승이 먹을 풀이 풍성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4)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출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외적이 침입하는 일이 없었기에 수탈당하는 일도 없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마지막 절이 잘 밝혀 줍니다.

(15)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앞부분은 감탄문입니다. “이런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사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가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도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 그런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복된 인생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큰 전쟁과 같은 일을 앞에 두고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훨씬 높고 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신은 물론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높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방패,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헛 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심과 우리를 생각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 됩니다. 다윗이 큰 전쟁을 앞에 두고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견주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복을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한없이 낮고, 좁고, 얇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한없이 높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음이 우리 평생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목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이 표현한 1인칭의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당신이 경험한 1인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 다윗은 사람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하여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인생무상을 느꼈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3. 당신이 하나님을 ‘자기(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혹 아직 이런 고백이 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자주 드려보십시오.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145:1~21

### [다윗의 찬송시]

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4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6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8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시도다 10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11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4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시도다 15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6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17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

에 은혜로우시도다 18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겐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도다 19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21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편 138편부터 시작된 다윗을 표제로 하는 여덟 편의 시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각 절의 첫 머리가 시작되는 답관체 시인데,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열네 번째 글자인 ‘nun’ 행이 생략되어 전체가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윗 개인의 찬양(1~3절)

시인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영원히 주님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45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2)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합멜레크’는 정관사 ‘하’에 왕을 뜻하는 명사 ‘멜레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가운데 아무리 많은 부, 명예, 권력을 지닌 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코끝의 호흡이 멈추는 날이 있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유일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한 다윗은 이어지는 표현에서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 직무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포함한 하나님과 관련된 전부를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그의 찬양이 습관적으로 드러지는 의식이나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목동 출신의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

는 동안 많은 전쟁과 내란으로 나라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게다가 밋세바와의 간음 사건, 인구조사 등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업적과 성과만을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다윗보다도 뛰어난 일을 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이스라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의 사귄을 일평생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영광스러운 이름,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습관적이거나 억지로 찬양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 다윗과 이스라엘이 함께 드리는 찬양(4~9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일평생 살아온 시인은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체험한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7)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성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  
과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을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많은 경우 전도나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몰라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전도나 선교는 자  
기가 배운 것,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  
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성  
품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여 상대방과 함께 하나님을 진심으  
로 찬양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확장하여 가족,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자의 사  
명,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10~21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다윗 개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확장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자연의 모든 만물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절~13절 말씀입니다.

(10~13)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힘을 가진 존재가 힘없고 약한 상대를 지배하려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 환경에 적합한 자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약하거나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자는 지배당하거나 그 사회에서 도태 됩니다. 인간 역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힘과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여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을 갖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글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서로 구분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 명예는 다 껍데기에 불과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

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 보며 살아가는 모든 생물에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17)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 말씀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사람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은 높고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히려 이런 연약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진심으로 찬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145편의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 번 1절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라도

그런데 처음 1절과는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서는 ‘시인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21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개인의 찬양이 민족의 찬양으로 확장되고, 이제 나아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분쟁과 미움과 시기는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함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 11:6~8)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며 무한한 능력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시 확장되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을 찬양하며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임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살아가므로 억지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닌 마음을 담은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나 자신에서 내 주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 확장되어 모든 만물이 왕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 예수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삶이 나로부터 확장되어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이르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어렵게 주님을 찬양하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 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위한 질문

1. 오늘도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2. 최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경험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3.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4.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온전한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시편 146:1~10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이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다섯 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들 시를 일명 ‘할렐루야 시(제3할렐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



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 인역 성경(LXX)’에는 ‘할렐루야 ; 학개와 스가랴의 시’란 표제로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내용이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포로기 이후로 기록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 후, 본국에 돌아온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즉 찬양하다 뜻의 히브리어 ‘할랄’과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가 합성된 단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이야기를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 처음과 끝이 모두 ‘할렐루야’입니다.

####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1~4절)

말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죽겠다’고 시작해서 ‘죽겠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자신의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먼 타국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죽겠다’가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좌절된 상황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

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삶에 최고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이 단어는 다른 시편의 장에서도 늘 명령형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마땅한 의무  
이자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 합  
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  
려 함이니라(사43:21)”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전’이라는 단어 ‘뻘하이야이’는 ‘내가 살아 있는 동  
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속, 반복적인’것을 강조하는 것이  
며,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삶이 무  
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게 됩니  
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 보단, 또한 하  
나님이 지향하시는 그 시선을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는 세상을  
더 알기 원하고, 우리의 욕심이 지향하는 대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3~4절에 경고합니다.

(3~4)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고

귀인이란 말은 시편에서 여러 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서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시인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까? 그들은 서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인들은 결국 죽게 마련이며 그들의 계획도 그들과 함께 소멸되고 맙니다. 소멸은 물거품입니다. 손에 짚 수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창2:7). 흙에 생기를 더하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기를 빼면 그냥 흙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창3:19). 본문에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본질은 흙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흙은 움켜쥐려고 해도 결국은 바람에 날리며 소멸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까?

##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5~10)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본문에서 하필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했을까요? 야곱의 뜻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 자체가 무언가를 잡기 위해 살아 왔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가족을 속이기도 하고, 속셈을 부리고, 무엇인가를 위해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잡으려고, 사람을 잡으려고, 물질을 잡으려고 밤새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누가복음 5:5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빈 배, 빈 그물’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밤이 새도록 수고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빈 배, 빈 그물’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슬프고, 때로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움켜쥐고 싶지만 모든 것은 바람에 날리는 흙입니다.

야곱이 압박 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는데, 야곱은 그가 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았습니다. 씨름이란 히브리어 ‘아바크’는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에도 야곱은 그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

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라(창32:28)” 야곱은 창세기 47:9 후반절에 바로 왕에게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힘들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 야곱이 붙잡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 다.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것 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 것입니 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 그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말1:2에 "야곱을 사랑하 셴다"고 합니다. 야곱이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셨습 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시선은 세상과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것들을 움켜 붙잡으려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의로운 손으로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할렐루야’가 내 영혼이 란 히브리어 ‘나프쉬’에서 터지도록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6~9)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6절에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태초에서 시작한 그 창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대로 모든 것이 진행형으로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조란 뒤바뀔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억눌린 자, 주린 자, 갇힌 자, 눈을 멀게 된 자,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습 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때로는 억눌리고, 주리고, 갇히고, 보는 것이 어렵고, 삶이 구부러지고, 외롭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서 넘치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시선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든, 내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게 만드는 습관을 길러 줍니다.

또한 삶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볼 때,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체휼하게 됩니다. 세상만을 불

잡으려는 손이, 그들을 붙잡고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뒤바뀌어지도록 그들을 “위하고, 주시고, 여시고, 일으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다”고 합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가 소외시켰던 사람을 품겠다는 결단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10)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시온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진리의 은혜! 이사야 43:19에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흠과 같이 소멸된 것들을 붙잡기 위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삶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야곱과 이미 함께 계셨고 그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 주님의 돌보심에 거하고 이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나는 삶에서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까?
3.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경험(은혜)들을 나뉘봅시다.
4.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일으켜줘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지 나뉘봅시다.

##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시편 147:1~20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7 감시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8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0 여호와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 여호와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2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3 그가 네 문빔장을 견고히 하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14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15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17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

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 회복시키는 하나님(1~6절)

시편 146~150편까지의 5편의 시를 ‘제3 할렐시’라 부르기도 하고, 시작하는 단어와 마치는 단어가 ‘할렐루야’이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146편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예배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146:2)”라고 노래하는데 ‘나의’와 ‘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면에 147~150편은 공동체적 감사 예배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147:1)”라며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사건을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절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와 13절의 ‘그가 네 문빛장을 견고히 하시고’의 표현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

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의 칙령으로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다 자손들은 그 이듬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반대자들의 집요한 방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재개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와중에 반대자들의 방해 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있던 후, 약 72년이 지나고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그 일에도 많은 방해가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시인이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데 명령형입니다. 이 구절에서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를 3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고, ‘아름답기 때문’이며,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것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2~3)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살폈듯이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의 방해는 참 집요했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트리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며, 심지어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농기구를 잡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지도 않았고, 물을 길으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서 갔습니다. 그들은 조각난 예루살렘 성벽을 마침내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각난 성벽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심한’의 문자적인 뜻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아무리 많이 조각난 상태로 있을지라도 맞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조각난 인생도 맞추어져 갑니다.

그렇게 조각난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기에 필요충분조건이 되시고도 영원히 남

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밝힙니다.

(4~5)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담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 동물들을 각각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 안에는 약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하계 안에 별들이 약 1천억 개 씩 있다고 합니다. 즉 우주는 한계를 가진 사람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숫자도 아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로 무더기로 부르시지 않고, 각각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해 주셨다(사 51:2 참조)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든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든지 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각각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나 가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가정, 믿는 가문에도 그 구성원의 100%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6)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성공한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우리보다 총명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우리보다 더 선한 삶을 삶에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정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7~11절)

1~6절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11절도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9)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심과 그리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은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지고 마는, 하찮고 보잘 것 없음을 상징합니다. 즉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야생동물’을 의미하고,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는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겨 꺼림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어미에게까지도 버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자라는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사람들 특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10~11) 여호와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말의 힘’은 ‘군사력’을, ‘사람의 다리’는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군사력과 같은 힘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의 힘이나 자신의 다리를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고스란히 남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2~20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 하나님을 찬양하라(12~20절)

(12~1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빋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시인은 예루살렘이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은 ‘문빋장을 견고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을 빼앗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빼앗으려는 성의 높이와 같은 성을 나무로 만들어서 그것을 성벽에 붙여서 성안으로 들어가 점령하는 방법입

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아주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성을 만든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또 그것을 이동하고 성에 붙이는 일은 더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성 위에서 뜨거운 기름이나 물을 붓거나 돌을 던지면 고스란히 당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선호되었는데,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문과 빗장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강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상의 곡물이었던 아름다운(최고급) 밀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15~18)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세 가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모두 겨울(추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녹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눈, 서리, 우박과 같은 것이 쏟아지

고,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녹이기에 충분히 따뜻하고 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춥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19~20)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데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서는 야곱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율례와 규례(하나님의 말씀)’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 우리들에게까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_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살면 실망하기 쉽고, 신앙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공급자임을 믿음으로,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용할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아 살게 하시듯, 흩어지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핀셋을 집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외면당하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추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용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나고 조각난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쳐주시고, 조각을 맞추어 주셨습니까?
2. 하나님은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들풀이나 까마귀 새끼와 같다고 생각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먹여주셨습니까?
3. 당신의 인생에 눈이 쏟아지고, 서리가 내리며, 우박이 떨어져서 몹시도 추웠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믿고, 하루를 '일용할 찬송'으로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온 천하 만물 우리러

시편 148:1~14

1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 그것들이 여호와 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6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꺾이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7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9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10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11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12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 여호와와 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14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 하늘의 찬양(1~6절)

오늘 본문은 ‘제3할렐시’ 또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146~150편까지의 5편 중에서 3번째 시편입니다. 146편과 147

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면, 오는 본문은 누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주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 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과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았는데, 세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지, 이전에 늘 보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 혼자서 중얼거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 시편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있는 시인의 마음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천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하늘에서’ 그리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이나 영적인 존재가 있는 곳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세계’를 뜻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존재는 모든 천사들(하늘의 군대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라고 뜻을 박고 있습니다.

(3~4)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것들 역시 고대에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다신교 국가에서의 ‘해(태양)’는 숭배의 1번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비롯하여 왕들이 숭배를 받았던 것도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죽으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도 거부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늘’은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신성한 공간 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영역(공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곳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도 하늘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틀이나 고정된 지지대가 있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

다. 그런 하늘의 하늘을 숭배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들’은 창세기 1:7에 나와 있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물은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쏟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중의 구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6)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군대들,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 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천상의 세계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운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 땅의 찬양(7~14절)

7~14절은 땅에 있는 천하 만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7~10)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용(탄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생물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새번역성경에서는 ‘바다의 괴물’로, 공동번역성경에는 ‘큰 물고기’로 번역합니다. 여러 영어 성경에서도 ‘용’, ‘큰 바다 생물들’, ‘바다 괴물들’ 등으로 번역합니다. 성경에서 물, 특히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그 두려움의 바다 속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 생물을 두려워했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전복되거나 난파가 되는 것은 바다에 사는 괴물이 끌어당겼기 때문이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생물(용)도 바다도 그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이라고 시인은 선언합니다.

또 불(번개)과 우박, 눈, 안개, 광풍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달고, 눈이 내리면 제설작업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초대형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 지진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고대에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언덕과 과일나무들, 백향목들, 짐승들, 가축들, 기어 다니는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11절 이하가 오늘 시편의 절정입니다. 1~6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것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고, 7~10절에서는 땅에 속한 것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11~12)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21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마이크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 마이크와 강대상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만약 마이크를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쓰고, 강대상을 난방용 뿔감으로 쓴다면,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쓰임새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목소리로, 삶으로 높이는 삶을 살 때에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또렷하게 말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늘에 있는 것들인 천사들,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하여, 땅에 있는 것들인 용들과 바다, 불(번개)과 우박, 눈, 안개, 짐승들, 새들, 왕들,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총 서른 가지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이셔서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의기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4)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뿔’은 ‘힘’, ‘영광’, ‘승리’, ‘구원’ 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즉 모든 성도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시인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뿔을 가장 높여주셨을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가 달하는 순간에 그들은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찬송이 오래 가지 못하고,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30일(1달)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출애굽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참 크게 여겨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며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외치고, 또 땅에 있는 것들에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다고 땅에 있는 번개, 우박, 눈, 안개와 같은 자연현상들이나 짐승들이나 새들이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그것은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감사입니다. 그 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숲 속으로 산책을 가면, 여러 새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새들이 우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새들이 노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종달새라고 언제나 높고 맑은 소리만 내겠습니까? 또 피꼬리라고 언제나 청아한 소리만 내겠습니까? 같은 새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맑고 상쾌하게 들리며,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을 가득 담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또 동물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동물, 특히 반려견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에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천재견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 동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 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뿌리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감으로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일용할 찬송’, ‘시편 148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할렐루야!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은, 그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시인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뿔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평생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나 먹을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며, 그것의 대소와 과다에 일희일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용할 시편 149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이 가장 고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그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 당신이 지난 신앙생활 중에 자연이나 동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3. 하나님은 우리의 뿔(힘, 영광, 승리, 구원)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시편 149:1~9

1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2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3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5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6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7 이것으로 못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 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1~5절)

오늘 본문은 ‘제3할렐시’ 또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146~150편까지의 5편 중에서 4번째 시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세상에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 시편 역시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지었

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할렐루야 시편과 동일하게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져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한 후에,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지은 시입니다.

(1)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이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는 갓 만들어진 노래이거나, 처음 불리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1차적으로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담은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양이신 주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을 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때의 그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은 언제나 새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드리는 노래도 새 노래입니다. 시인이 성도들의 모임 앞에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즉 신앙공동체, 예배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 시편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하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부른 찬양이었다면, 그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시편 137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자손들이 바빌로니아의 강변에 있을 때에 울 일은 많았지만 노래를 부를 일은 없어서, 강변에 가로수처럼 서 있는 여러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습니다. 한 강변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강변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노래 중에 최초의 대중가요는 1928년에 만들어진 ‘황성옛터’입니다. ‘황성(皇城)’은 ‘황폐해진 성’을 뜻하는 말인데, 고려의 수도 ‘개성(개성의 만경대를 가 보고서 지은 노래)’을 의미합니다. 이애리수라는 18살의 소녀가 이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 극장이 울음바다였습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바빌로니아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함께 부른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2)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최신 스마트폰 사 주셔서 감사해요.”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면, 그것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부모의 능력과 부모가 베풀어주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의 말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감사는 “엄마와 아빠가 내(우리) 부모님이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를 내(우리) 부모님으로 주신 것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와 같은 말이나, “제가 엄마와 아빠의 아들과 딸인 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와 같은 말을 들으면 부모의 가슴은 감동으로 터질 것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주민(자녀)’이 그들의 왕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때에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주민’이 아니라 ‘시온의 주민’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 언덕이지만,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얼마나 큰 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3)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는데 노래만으로는 부족해서 ‘춤’과 ‘악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춤을 추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곳이 출애굽기 15장과 사무엘하 6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고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이 끝이 났을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춤추는 장면입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으니, 미리암의 나이는 최소한 90세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구원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오벧에돔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고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이 체신머리가 없다고 비웃었지만, 다윗에게는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존(至尊)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그를 가만있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콘서트에서 아무런 악기도 없이 노래만 하면 감동은 반감될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소고는 타악기를 대표한다면, 수금은 현악기를 대표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드럼과 기타로 반주하며 찬양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춤과 악기를

더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것도 없을지라도 서로가 기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순전한 기쁨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로 인해서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빈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5)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며 출산을 하였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한 여인이 영광이 떠났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있었음을 사람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또한 침상에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침상은 ‘잠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잠이 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잠들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람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6~9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6~9절)

(6~7)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 것으로 못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에는 검을 들고서 못 나라(이방인)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지속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못 나라의 일들,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야 함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가 말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8~9)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라도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바빌로니아에 유다가 망할 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인 시드기야가 어떤 수모를 당하는 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도 거의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 후에 눈으로 된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산 사람들에게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한 평생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해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의 몸은 바늘 투성이입니다. ‘고슴’이 ‘가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의 바늘은 다른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올 때에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를 ‘함함하다’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함하다’는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음으로,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평생 '새 노래'이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노래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도 늘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어디 이든, 또 거기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에 잠 자리에 잠이 들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잠을 주시며, 밤새도록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 받은 일용할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가장 최근에 성도들의 모임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그 때에 어떤 노래를 올려드렸습니까?
2.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즐거워 한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고 생각되었던 적은 언제이었습니까?
3.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속적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 150:1~6

1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5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제3할렐시’ 또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146~150편까지의 다섯 편 중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시편이기도 하고, 5권으로 된 시편의 제5권의 마지막 시이기도 하고, 백십편으로 된 시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1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잔잔하게 요청하는 시냇물과 같다면, 150편은 거대한 폭포수와 같습니다. 10개의 명령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낸 다음,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마침표, 아니 화룡점정(畫龍點睛)을

찍는 것 같습니다.

(1)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장소를 ‘성소’와 ‘궁창’이라 합니다. ‘성소’는 ‘성전 안의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고 ‘궁창’은 ‘하늘(우주공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를 위해서는 우주로 나가야 합니다. 최소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소와 궁창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회막\_the tent of meeting’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만남의 텐트’입니다. 거기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시편 19:1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우주)에는 하나님의 흔적

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알았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햇불이나 등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옥문은 흔들여 열어 주시고, 그 일로 그 감옥의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자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를 ‘경배와 찬양’ 또는 ‘찬양과 경배’라고 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말할 때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서 노래하는 것’이라면,

‘경배’는 ‘자신을 낮추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다’의 문자적인 뜻이 ‘엎드리다’, ‘절하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전반절인 ‘그의 능하신 행동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 할 수 있고, 후반절인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내용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최고, 최대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형편없고, 허물투성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길에서 진창 속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고집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던 우리 인생의 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참을 인(忍)자가 수도 없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자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심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떡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노래합니다. 이 찬송 가사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3~5)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은 야생염소의 뿔로 만들었는데 제사들이 제사드릴 때에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둘 다 현악기인데 ‘하프와 거문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파’는 고대의 기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고’는 전형적인 타악기인 드럼인데 서민들이 축제나 절기 때에 기뻐 환호성을 지를 때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현악은 현악기의 총체를 가리키고 또 통소는 플루트입니다. 통소(플루트)는 소고와 반대로 격한 슬픔을 억누를 수 없을 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과 ‘높은 소리 나는 제금’은 심벌즈(cymbals), 캐스터네츠와 같은 악기입니다. 여기에는 관악기는 물론이고, 현악기, 심지어 타악기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예배당 사용할 수 있는 악기와 사용할 수 없는 악기들을 구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 신앙의 색깔에 따라, 신앙의 연륜에 따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예배당에 피아노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2~300년 전만 해도 피아노는 굉장히 저급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오르간을 사용해야지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은 불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찬양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등등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심지어 믿음을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찬양을 잘하는 은사” 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노래가 뛰어남을”과 같

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은사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의 우열이나 악기의 귀천이 없듯이, 목소리의 좋고 나쁨도 없고, 고음과 저음을 잘 내고 못 낼도 없습니다. 찬양은 목소리의 기능이나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태도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150편까지 다섯 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절정이 150편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 함께 고백하는 ‘아멘’에는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뜻은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떤 때는 원어를 그대로 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의미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종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쓰곤 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도 어떤 때에는 ‘할렐루야’ 그대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번역합니다.

- (1)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할렐루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할렐루
- (2) 그의 능하신 행동을 할렐루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할렐루
- (3) 나팔 소리로 할렐루 비파와 수금으로 할렐루
- (4) 소고 치며 춤추어 할렐루 현악과 통소로 할렐루
- (5)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할렐루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할렐루

(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할렐루 할렐루야

여섯 절에 ‘할렐루’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할렐루’가 아니라, ‘야’에 있습니다. 아무리 ‘할렐루(찬양하라)’를 외쳐도, ‘야(여호와 하나님)’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할렐루를 많이 할수록, 크게 할수록 낭패를 당합니다. ‘할렐루 바알’, ‘할렐루 아스다롯’, ‘할렐루 내 욕망’이면 할렐루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할렐루’는 오직 ‘할렐루야’일 때에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Hymn to the Creator(창조주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시편의 결론이 150편인데, 시편에 나오는 모든 노래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6개월 보름동안, 백 신 편으로 된 시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시(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노래)가 즐겁고 행복을 느낄 때에 나올 것 같아도 실제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고,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끝이 나지 않은 책이 2권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자며, “사도행전 29장을 사십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성경이 구약에는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시편 151편을 기록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구약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장(119편, 176절)도 시편에 있고, 가장 짧은 장도 시편(117편,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가운데 장(118편)도 시편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손에 쥐고 한 가운데를 펼치면, 그곳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눈물의 골짜기처럼 보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을지라도, 자신의 삶의 한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론, 우리의 매일 매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151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보름동안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튼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의 온 삶과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역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음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과 믿음의 악기가 최상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줄을 맞추어 주시고 연주하여 주심으로,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순간이라도 '할렐루~내 욕망'이나 '할렐루~세속적 가치관'이라 고백하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삶이 '오늘의 찬송~시편 151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 시편 150편을 묵상하면서 경험한 가장 깊은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2.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과 경배(하나님의 성품을 노래)를 돌려드려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지금 있는 곳에서 찬송가를 펴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찬송을 가만히 불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의탁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시편 151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